

제2차 2014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미래와 활동 활성화

- ▶ 일시 : 2015년 3월 13일(금) 14:00~17:00
- ▶ 장소 :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1층 중강당1

인사말 ■ ■ ■

모든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두 차례에 걸쳐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발표회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성장 지원’을 주제로, 학교폭력 해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가출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이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 풍토 조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구축,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및 제고를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현장·학계·정부 부처의 의견을 모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차 발표회에서는 ‘청소년의 미래와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의 주체이자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이 보다 진취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함양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고, 전반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미래 환경변화와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진단하였습니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결과들이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한정

세부일정 (2차)

시 간	진 행 내 용
14:00~14:10	▣ 개회식 ▶ 개회사 : 노 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사회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4:10~14:40 (발표20분, 토론10분)	▣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인식 및 참여 실태 ▶ 발표자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김민(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14:40~15:10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발표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정효진(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전문위원)
15:10~15:20	COFFEE BREAK
15:20~15:50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 발표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임성택(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50~16:20	▣ 미래 환경변화와 청소년정책의 과제 ▶ 발표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16:20~17:00	▣ 종합토론
17:00	▣ 폐회

목차

발표

-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인식 및 참여 실태 1
김 정 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29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51
김 영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래 환경변화와 청소년정책의 과제 81
이 경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1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인식 및 참여 실태

김 정 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인식 및 참여 실태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로 대표되는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상,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원조 사업이다. 한국의 경우 1987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설립, 1991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11월 25일에 한국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에서의 공여국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책무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치,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는 국내의 여러 부처와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의지를 보였다. 또 2010년 10월에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 국민과 함께 하는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기반 확대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권율·이주영, 2012: 1). 특히, 박근혜 정부의 14대 국정과제 중 130번째 과제인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133번 과제인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 및 국가간 협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우리 정부가 대외원조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4.2%로 나타났다(‘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36.8%, ‘전혀 모른다’17.4%). 즉,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대외원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ODA 정책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111). 특히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을 증진시키

1)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도 고유과제로 수행한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기 위해서는 청소년 세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자원봉사활동에 국한하여 관련 논의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박숙경·김소화·오세정(2011), 윤철경 외(2011)의 연구에서는 2010년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이해증진도 및 글로벌 역량을 조사하고 국제교류 참여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국제교류 사업을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최희선(2010)의 연구 역시 KOICA의 청소년 개발분야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한편, 해외자원봉사에 관한 연구들(서홍란·박정란, 2014; 이창호·김연우, 2012; 황기우, 2010) 역시 그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국제개발협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해외자원봉사에 관한 논의는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과 청소년 분야의 연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요구 및 한국사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요구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전기 및 후기청소년 세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상술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대표적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하나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실태와 욕구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한국 내 국제개발협력의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청소년정책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을 간략히 소개한 뒤,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인식 및 참여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및 전개 과정

국제개발협력은 ODA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를 비롯하여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수출신용, 민간투자와 같이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는 공여국이 수원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시혜적 관점보다는 상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관점에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원조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협력방식의 필요성을 함의한다.²⁾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³⁾

2000년 UN총회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합의된 개발협력 목표로, 다차원적 빈곤 해결을 위한 공동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절대빈곤과 기아, 교육, 보건, 환경, 개발협력 등을 포괄하는 8가지 목표와 60여 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⁴⁾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최빈국의 상황에서 미국, 일본, UN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았던 수원국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서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하여 1963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발도상국 연수생의 초청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1965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에는 해외로 전문가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⁵⁾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구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원조를 실시하였으나, 우리 경제가 성장하자 개도국으로부터의 원조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점차 우리 정부 자금에 의한 원조규모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2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DEP)을 시작하였다. 1986년 아시안개발

2)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2014년 2월 13일 인출.

3)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http://law.go.kr/linfoP.do?lsiSeq=115231#0000> 2014년 2월 14일 인출.

4)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구체적으로 8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Eradicate extreme poverty & hunger), ②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③ 남녀평등 및 여성 인권 신장(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④ 아동 사망률 감소(Reduce child mortality), ⑤ 모성 보건 향상(Improve maternal health),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⑧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5)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외채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본격화되었고, 1989년 정부는 UNESCO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을 시작하였다.⁶⁾ 1991년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여 개도국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제공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KOICA는 1992년 프로젝트사업과 1995년 국제협력요원파견 및 민간원조단체(NGO)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0년 대 들어, 원조 공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조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가입으로 다자간 원조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7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2006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9년에는 대한민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단일 브랜드 “World Friends Korea”가 출범하였다. 2010년 한국은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하여,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형성에 기여하였다.⁷⁾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다른 공여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ODA 규모를 확대해 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ODA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2012년 OECD의 ODA 지원 실적에 따르면, 한국의 ODA 규모는 약 16억불로 28개 DAC 회원국 중 16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집계되어 22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ODA 지원을 더욱 확대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 이후 해마다 ODA 규모를 증가시켜왔으나, 당초의 계획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소년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현황

국제협력과 관련된 활동은 그간 청소년분야에서 ‘국제교류활동’으로 통칭되어 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되며, 이 때 국가 간 청소년교류 활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

6)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7)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김민, 2011: 108).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 중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1979년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협정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후 2012년에는 21개국과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21개국에 303명 파견, 317명 초청 등 총 620명과 교류를 실시하였다. 2012년 현재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국은 총 32개국으로 아시아 10개국, 유럽 10개국, 중남미 3개국, 중동과 아프리카가 9개국이다(여성가족부, 2013: 112~116).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행사참가단과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이 포함된다. 국제회의·행사참가단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라는 모토로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08년부터 추진해왔다.

한편, 청소년정책 사업 중 국제개발협력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배경과 활동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먼저 사업 배경은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을 체득하기 위한 사회참여 현장을 해외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 빈곤, 평화 등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2012: 19). 2013년까지 진행된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 MDGs(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활동에 참여
- 청소년의 직업과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현장의 해외 확대
-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함양과 역량강화
- 청소년의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 체득을 위한 인도주의적 세계관 배양
- 저탄소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현실적 경험과 건강한 국가관 형성
- G20체제에 대응하는 한-아세안 관계증진을 위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협력 활성화

표 1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현황

시기	파견국가	파견팀	파견인원	비고
2005	1개국	1개	35명	캄보디아
2006	14개국	23개	436명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2007	16개국	32개	593명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2008	12개국	41개	715명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2009	12개국	34개	630명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동티모르
2010	12개국	34개	654명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라오스
2011	11개국	34개	704명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중국, 태국
2012	5개국	8개	160명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013	9개국	23개	457명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 출처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2012). <http://iye.youth.go.kr/iye/pgif/odi/view.do> 2014년 5월 29일 인출.

3)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선행연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ODA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향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면 차세대에 대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조사는 권율·이주영·유애라(2014)의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가 유일하다. <표 2>는 이 연구에서 성인과 청소년의 ODA 관련 인식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들에 비해 대외원조 찬성 비율이 다소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과 청소년의 ODA 관련 인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대외원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는 청소년(45.8%)에 비해 성인(64.0%)이 훨씬 높은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인(40.0%)에 비해 청소년이(79.0%)이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청소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 중 77.6%가 대외원조와

관련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결과를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홍보 및 인식 확산 사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성인과 청소년의 ODA 관련 인식 비교⁸⁾**

조사내용	결과(%)	
	성인	청소년
개도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책임 및 참여의 중요성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94.7%	96.0%
한국정부가 개도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	87.3%	84.0%
대외원조와 관련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없다	58.4%	77.6%
한국이 개도국에 대외원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	64.0%	45.8%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40.0%	79.0%

* 출처: 권율·이주영·유애라(2014),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pp. 179-285 재구성.

한편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참여는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개별 대학 차원이나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차원의 사업으로 운영되어(김용주, 2011; 김지만·김예란, 2013; 이석열, 2004; 이재득, 2011; 이창호·김연우, 2012; 이환·조수연·김매이·정효경, 2011) ODA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사업이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ODA의 일환으로 청소년분야에서 최초로 수행된 사례는 팔레스타인 헤브론의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이다. 한국은 2007년 파리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고, 2009년 2월 팔레스타인의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규학교시설과 비형식교육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센터 건립을 계기로 지식, 기술, 소양 전파 등 핵심교육 및 연수활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전수하고, 나아가 청년해외봉사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민, 2011).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정책 사업으로 실시되어 오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방향성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과 관련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기존 사업에 추가해야 할 사업으로 개발협력(ODA)과 연계한 해외봉사활동이 1순위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이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8) 성인대상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조사 실시하였고, 청소년대상 조사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위해 개발해야 할 1순위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윤철경, 2011: 192, 195).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청소년개발 분야의 역할과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최희선, 2010), KOICA에서 청소년개발 분야에 인력을 파견하고는 있지만 KOICA 스스로 청소년개발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청소년들이나 지도자들은 KOICA 청소년개발 분야 사업이 현지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협력 분야 중 기초교육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성상(2010: 240~241)에 따르면 현재 개발협력 관련 기초교육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분야의 지원은 주로 하드웨어적 지원인 학교 건설이나 개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초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교육분야에서도 기초교육 지원계획이 단기, 중,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연구방법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관심도는 어떠한지 향후 참가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 실태조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다. 2013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ODA 국민인식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병행한 청소년 인식 조사가 유일하다(권윤희·주영·유애라, 2014).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15세부터 18세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 샘플 수도 500명으로 제한적이어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청소년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대표적 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해외자원봉사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만 15세~18세, 만 19세~24세 이하 남녀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표집틀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성별(남성, 여성), 지역(서울 및 수도권, 그 외 지역), 연령(만 15~18세, 만 19~24세) 등을 기준으로 비확률표집방법 중 하나인 할당표집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2014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2,264부가 취합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2,210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거주지, 연령별 기술통계치는 <표 3>과 같다. 설문조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 외에 1)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참여, 2) 해외자원봉사단에 대한 인식 및 참여, 3)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배경 및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 상술한 세 가지 주제에 관한 내용에 있어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χ^2)을 실시하였다.

표 3 연구대상의 배경변인별 기술통계치

배경변인	구분	명	%	계
성별	남	1,168	52.9	2,210 (100.0%)
	여	1,042	47.1	
거주지	수도권	1,094	49.5	2,210 (100.0%)
	비수도권	1,116	50.5	
연령	만 15~18세	864	39.1	2,210 (100.0%)
	만 19~24세	1,346	60.9	

표 4 설문조사 내용

범주	내용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참여	•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대외원조 인지 여부 • 새천년개발목표 및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인지 여부 •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유무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예산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해외자원봉사 활동 관련 인식 및 참여	•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가 여부 및 참여/불참여 이유 •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관심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및 경로 • 국제개발협력 교육 필요성

4. 연구결과

1)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참여

(1)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변인에 따라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18.2%, ‘전혀 모른다’는 9.9%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8.0%, ‘전혀 모른다’는 15.7%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만 19~24세 청소년이 만 15~18세 청소년에 비해 정부의 대외원조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서도 이와 유사한 차이가 있었는데,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χ^2
성별	남성	1124	205(18.2)	517(46.0)	291(25.9)	111(9.9)	73.539***
	여성	1086	87(8.0)	456(42.0)	372(34.3)	171(15.7)	
연령	만 15~18세	876	98(11.2)	360(41.1)	277(31.6)	141(16.1)	21.264***
	만 19~24세	1334	194(14.5)	613(46.0)	386(28.9)	141(10.6)	
거주지	수도권	1124	162(14.4)	474(42.2)	345(30.7)	143(12.7)	4.653
	비수도권	1086	130(12.0)	499(45.9)	318(29.3)	139(12.8)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254(14.3)	825(46.4)	517(29.1)	181(10.2)	69.474***
	없음	433	38(8.8)	148(34.2)	146(33.7)	101(23.3)	

†<.1, *p<.05, **p<.01, ***p<.001

(2)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는 성별과 해외자원봉사 활동 관심 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남성(24.1%)이 여성(16.1%)보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22.6%)가 관심이 없는 경우(9.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χ^2
성별	남성	1124	58(5.2)	212(18.9)	288(25.6)	566(50.4)	24.746***
	여성	1086	28(2.6)	147(13.5)	331(30.5)	580(53.4)	
연령	만 15~18세	876	28(3.2)	137(15.6)	230(26.3)	481(54.9)	6.331
	만 19~24세	1334	58(4.3)	222(16.6)	389(29.2)	665(49.9)	
거주지	수도권	1124	45(4.0)	188(16.7)	306(27.2)	585(52.0)	.920
	비수도권	1086	41(3.8)	171(15.7)	313(28.8)	561(51.7)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80(4.5)	322(18.1)	522(29.4)	853(48.0)	60.350***
	없음	433	6(1.4)	37(8.5)	97(22.4)	293(67.7)	

† < .1, * < .05, ** < .01, *** < .001

(3)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 인지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대한 인지 여부는 거주지를 제외한 배경변인별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39.7%)이 여성(34.2%)에 비해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후기청소년이 전기청소년에 비해 인지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40.8%)의 경우 관심이 없는 응답자(21.5%)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7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 인지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χ^2
성별	남성	1124	117(10.4)	329(29.3)	312(27.8)	366(32.6)	8.182*
	여성	1086	87(8.0)	284(26.2)	322(29.7)	393(36.2)	
연령	만 15~18세	876	89(10.2)	220(25.1)	236(26.9)	331(37.8)	11.507**
	만 19~24세	1334	115(8.6)	393(29.5)	398(29.8)	428(32.1)	
거주지	수도권	1124	107(9.5)	314(27.9)	326(29.0)	377(33.5)	.748
	비수도권	1086	97(8.9)	299(27.5)	308(28.4)	382(35.2)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179(10.1)	545(30.7)	516(29.0)	537(30.2)	80.394***
	없음	433	25(5.8)	68(15.7)	118(27.3)	222(51.3)	

†<.1, *p<.05, **p<.01, ***p<.001

(4) 개발도상국 돕기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유무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네 가지 활동의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재정적 기부’(44.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활동은 ‘캠페인 참여’(42.7%), ‘물품 기증’(30.0%) 순이었다. ‘해외봉사활동’(7.8%)의 참여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개발도상국 돕기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유무

	사례수	있다	없다
재정적 기부	2210	44.1%	55.9%
물품 기증	2210	30.0%	70.0%
캠페인 참여	2210	42.7%	57.3%
해외봉사활동	2210	7.8%	92.2%

(5)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 필요성

<표 9>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기청소년이 후기청소년에 비해 예산 지원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주지에 따라 예산 확충 필요성 인식 여부에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응답자가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관심이 없는 경우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충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14.9%)가 그렇지 않은 경우(5.5%)보다 예산 지원을 늘릴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9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 필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성별	남성	1124	147(13.1)	637(56.7)	303(27.0)	37(3.3)	9.032*
	여성	1086	142(13.1)	620(57.1)	309(28.5)	15(1.4)	
연령	만 15~18세	876	129(14.7)	509(58.1)	218(24.9)	20(2.3)	7.560 †
	만 19~24세	1334	160(12.0)	748(56.1)	394(29.5)	32(2.4)	
거주지	수도권	1124	153(13.6)	628(55.9)	316(28.1)	27(2.4)	1.078
	비수도권	1086	136(12.5)	629(57.9)	296(27.3)	25(2.3)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265(14.9)	1062(59.8)	425(23.9)	25(1.4)	117.844***
	없음	433	24(5.5)	195(45.0)	187(43.2)	27(6.2)	

†<.1, *p<.05, **p<.01, ***p<.001

2) 해외자원봉사 활동 관련 인지 및 참여 정도

(1)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표 10>에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거주지 변인을 제외한 배경변인별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90.7%)에 비해 여성(95.4%)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만 15~18세 중에서 39.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만 19~24세 중에서는 29.2%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전기청소년이 후기청소년에 비해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 중 37.8%가 ‘매우 중요하다’, 3.4%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관심이 없는 응답자들은 14.5%가 ‘매우 중요하다’, 17.3%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10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중요함	어느 정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χ^2
성별	남성	1124	363(32.3)	656(58.4)	92(8.2)	13(1.2)	19.086***
	여성	1086	371(34.2)	665(61.2)	43(4.0)	7(0.6)	
연령	만 15~18세	876	344(39.3)	477(54.5)	48(5.5)	7(0.7)	24.025***
	만 19~24세	1334	390(29.2)	844(63.3)	87(6.5)	13(1.0)	
거주지	수도권	1124	370(32.9)	686(61.0)	56(5.0)	12(1.1)	6.085
	비수도권	1086	364(33.5)	635(58.5)	79(7.3)	8(0.7)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671(37.8)	1044(58.8)	60(3.4)	2(0.1)	231.823***
	없음	433	63(14.5)	277(64.0)	75(17.3)	18(4.2)	

†<.1, *p<.05, **p<.01, ***p<.001

(2)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표 11>과 같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7.6%)보다 남성(10.1%)이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만15~18세(6.7%)보다 만19~24세(10.3%)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에(10.3%) 참여했다는 응답이 관심이 낮은 경우(3.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χ^2
성별	남성	1124	114(10.1)	1010(89.9)	4.590*
	여성	1086	82(7.6)	1004(92.4)	
연령	만 15~18세	876	59(6.7)	817(93.3)	8.174**
	만 19~24세	1334	137(10.3)	1197(89.7)	
거주지	수도권	1124	110(9.8)	1014(90.2)	2.383
	비수도권	1086	86(7.9)	1000(92.1)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183(10.3)	1594(89.7)	22.931***
	없음	433	13(3.0)	420(97.0)	

† <.1, *p<.05, **p<.01, ***p<.001

(3)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등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 이유의 차이는 없었다. 다만,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 ‘빈곤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53.0%),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서’ (25.7%),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하여’(14.8%), ‘주변의 권유로’(4.4%) 순이었던 반면, 관심이 없을 경우는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하여’(46.2%)라는 응답이 ‘빈곤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7.7%)보다 월등히 높아 평소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표 12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빈곤국가 돕기 위해	다른 나라 방문하고자	봉사활동 실적 쌓기 위해	주변의 권유로	기타	χ^2
성별	남성	114	55(48.2)	24(21.1)	24(21.1)	7(6.1)	4(3.5)	5.497
	여성	82	43(52.4)	25(30.5)	9(11.0)	3(3.7)	2(2.4)	
연령	만 15~18세	59	34(57.6)	12(20.3)	6(10.2)	5(8.5)	2(3.4)	5.856
	만 19~24세	137	64(46.7)	37(27.0)	27(19.7)	5(3.6)	4(2.9)	
거주지	수도권	110	57(51.8)	25(22.7)	18(16.4)	6(5.5)	4(3.6)	1.049
	비수도권	86	41(47.7)	24(27.9)	15(17.4)	4(4.7)	2(2.3)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87	97(53.0)	47(25.7)	27(14.8)	8(4.4)	4(2.2)	22.400***
	없음	13	1(7.7)	2(15.4)	6(46.2)	2(15.4)	2(15.4)	

† <.1, *p<.05, **p<.01, ***p<.001

(4)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 이유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 이유는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 따르면, 성별의 경우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동일하였으나, 세 번째로 높은 이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에서는 ‘기회가 없었음’과 ‘참여비용 부담’에 이어 ‘위험하고 힘들’(11.0%)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에서는 ‘관심이 없음’(17.7%)이 세 번째로 높았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만 15~18세의 경우 ‘기회가 없었음’과 ‘참여비용 부담’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관심이 없음’(14.1%)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19~24세에서는 ‘기회가 없었음’(38.3%)이 첫 번째로 높은 이유였고, ‘참여비용 부담’(29.9%)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위험하고 힘들’(13.5%)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로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 19~24세 비해 만 15~18세에게서 해외자원봉사의 기회가 없는 점과 참여비용 부담이 참여에 커다란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참여 이유는 거주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도권에서는 ‘기회가 없었음’(36.9%)과 ‘참여비용 부담’(32.7%)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기회가 없었음’(38.8%)과 ‘참여비용 부담’(28.5%)간의 차이가 약 10%포인트로 나타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일수록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평소에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기회가 없어서’(45.3%)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관심이 없는 응답자에서는 ‘관심이 없어서’(37.6%)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참여비용 부담’과 ‘위험하고 힘들’ 순으로 대조를 보였다.

표 13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관심이 없음	위험하고 힘들	기회가 없었음	참여비용 부담	주변의 반대	기타	χ^2
성별	남성	1010	179(17.7)	125(12.4)	360(35.6)	275(27.2)	21(2.1)	50(5.0)	58.160***
	여성	1004	72(7.2)	110(11.0)	402(40.0)	342(34.1)	31(3.1)	47(4.7)	
연령	만 15~18세	817	115(14.1)	73(8.9)	303(37.1)	259(31.7)	22(2.7)	45(5.5)	13.815*
	만 19~24세	1197	136(11.4)	162(13.5)	459(38.3)	358(29.9)	30(2.5)	52(4.3)	
거주지	수도권	1014	119(11.7)	129(12.7)	374(36.9)	332(32.7)	18(1.8)	42(4.1)	13.330*
	비수도권	1000	132(13.2)	106(10.6)	388(38.8)	285(28.5)	34(3.4)	55(5.5)	
해외자원 봉사 관심 유무	있음	1594	93(5.8)	148(9.3)	722(45.3)	527(33.1)	39(2.4)	65(4.1)	442.979***
	없음	420	158(37.6)	87(20.7)	40(9.5)	90(21.4)	13(3.1)	32(7.6)	

† <.1, *p<.05, **p<.01, ***p<.001

(5)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표 14>에 따르면, 성별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매우 관심 있음’의 경우 남성(18.5%)보다 여성(2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별로 관심 없음’의 경우 남성(21.0%)이 여성(12.9%)보다 더 높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관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에 따른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만 15~18세에 비해 만 19~24세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에 따라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4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관심 있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별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χ^2
성별	남성	1124	208(18.5)	639(56.9)	236(21.0)	41(3.6)	49.897***
	여성	1086	295(27.2)	635(58.5)	140(12.9)	16(1.5)	
연령	만 15~18세	876	217(24.8)	470(53.7)	161(18.4)	28(3.2)	10.329*
	만 19~24세	1334	286(21.4)	804(60.3)	215(16.1)	29(2.2)	
거주지	수도권	1124	242(21.5)	664(59.1)	189(16.8)	29(2.6)	2.382
	비수도권	1086	261(24.0)	610(56.2)	187(17.2)	28(2.6)	

†<.1, *p<.05, **p<.01, ***p<.001

(6)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1순위에 대한 배경 변인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모든 배경변인별로 '저소득층 참여경비 보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변인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우선 성별의 경우 여성은 저소득층 참여경비 보조와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의 순서로 활성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저소득층 참여경비 보조와 국제개발협력 교육 확대를 선호하였다. 실적관리 및 학점인정 확대에 대해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비율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에도, 전기청소년들의 경우 저소득층 참여경비 보조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 교육 확대를 선호한 반면,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저소득층 참여경비 보조 다음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실적관리 및 학점인정 확대는 후기청소년에 비해 전기청소년의 선호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후기청소년에 비해 전기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외자원봉사를 위한 가용 시간이 부족하고 학업 시간 등이 고정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응답자의 18.2%는 해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실적관리 및 학점인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8.3%만이 해당 항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해외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실적관리 및 학점인정 확대가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개발협력의 철학이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성찰의 기회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실적 및 학점인정 확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5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국제개발협력 교육 확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자산등록 참여경비보조	실적관리 및 학점인정확대	참여후기 홍보	χ^2
성별	남성	1124	301(26.8)	287(25.5)	372(33.1)	136(12.1)	28(2.5)	15.859**
	여성	1086	251(23.1)	296(27.3)	413(38.0)	91(8.4)	35(3.2)	
연령	만 15~18세	876	232(26.5)	187(21.3)	335(38.2)	100(11.4)	22(2.5)	20.716***
	만 19~24세	1334	320(24.0)	396(29.7)	450(33.7)	127(9.5)	41(3.1)	
거주지	수도권	1124	270(24.0)	300(26.7)	402(35.8)	118(10.5)	34(3.0)	1.317
	비수도권	1086	282(26.0)	283(26.1)	383(35.3)	109(10.0)	29(2.7)	
해외자원 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460(25.9)	477(26.8)	641(36.1)	148(8.3)	51(2.9)	37.856***
	없음	433	92(21.2)	106(24.5)	144(33.3)	79(18.2)	12(2.8)	

†<.1, *p<.05, **p<.01, ***p<.001

3)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1)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

<표 16>에서와 같이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의 차이는 없었으나,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19.1%)가 관심이 없는 경우(8.8%)보다 관련 교육 이수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16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χ^2
성별	남성	1124	196(17.4)	928(82.6)	.180
	여성	1086	182(16.8)	904(83.2)	
연령	만 15~18세	876	149(17.0)	727(83.0)	.009
	만 19~24세	1334	229(17.2)	1105(82.8)	
거주지	수도권	1124	202(18.0)	922(82.0)	1.214
	비수도권	1086	176(16.2)	910(83.8)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340(19.1)	1437(80.9)	26.342***
	없음	433	38(8.8)	395(91.2)	

†<.1, *p<.05, **p<.01, ***p<.001

(2)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로(복수 응답)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자들의 이수 경로를 파악해본 결과, ‘학교 수업(정규/특별 수업, 초청 특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다. 방송(TV, 라디오, 케이블, 인터넷 방송 등)은 33.9%, ‘청소년 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시설 등’은 34.7%, ‘종교 단체’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6.6%, ‘기타’경로는 4.8%로 나타났다.

표 17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로

(단위: 명, %)

		사례수	학교 수업	방송	청소년 단체 등	종교 단체	기타
성별	남성	196	133(67.9)	78(39.8)	60(30.6)	15(7.7)	7(3.6)
	여성	182	119(65.4)	50(27.5)	71(39.0)	10(5.5)	11(6.0)
연령	만 15~18세	149	102(68.5)	59(39.6)	47(31.5)	10(6.7)	7(4.7)
	만 19~24세	229	150(65.5)	69(30.1)	84(36.7)	15(6.6)	11(4.8)
거주지	수도권	202	129(63.9)	68(33.7)	75(37.1)	14(6.9)	9(4.5)
	비수도권	176	123(69.9)	60(34.1)	56(31.8)	11(6.3)	9(5.1)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340	224(65.9)	117(34.4)	122(35.9)	24(7.1)	14(4.1)
	없음	38	28(73.7)	11(28.9)	9(23.7)	1(2.6)	4(10.5)

(3)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연령이나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성별과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여성(95.8%)이 남성(92.3%)보다 동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관심이 있는 경우 국제개발협력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가 34.8%로 관심이 없는 응답자(8.5%)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2%로 관심이 없는 응답자의 21.7%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18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필요함	어느 정도 필요함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χ^2
성별	남성	1124	321(28.6)	716(63.7)	72(6.4)	15(1.3)	13.183**
	여성	1086	334(30.8)	706(65.0)	41(3.8)	5(0.5)	
연령	만 15~18세	876	266(30.4)	556(63.5)	45(5.1)	9(1.0)	.673
	만 19~24세	1334	389(29.2)	866(64.9)	68(5.1)	11(0.8)	
거주지	수도권	1124	324(28.8)	738(65.7)	52(4.6)	10(0.9)	2.190
	비수도권	1086	331(30.5)	684(63.0)	61(5.6)	10(0.9)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618(34.8)	1120(63.0)	34(1.9)	5(0.3)	303.868***
	없음	433	37(8.5)	302(69.7)	79(18.2)	15(3.5)	

† < .1, *p < .05, **p < .01, ***p < .001

5. 결론 및 제언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및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인식 및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정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청소년 중 약 40%는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약 80%는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약 60%는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자원봉사활동 관련 인식 및 참여 정도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써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들 중 절대 다수는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기청소년에 비해 전기청소년의 참여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한 청소년들 중 50%는 참여 동기가 빈곤 국가를 돕겠다는 의지로 나타났지만, 약 25%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싶은 기대감과 호기심이, 약 18%는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한 동기도 작용하였다.

한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참여비용의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기청소년의 경우 참여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이 후기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집단별로 차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기청소년(81.7%)이 후기청소년(78.5%)에 비해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관심도도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심도가 높은 전기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참여 비용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도권 청소년에 비해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수도권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참여 경비 보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개발협력 교육 확대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것은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 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돕는 경비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실적 관리 및 학점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 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전 및 철학을 공유하는 사전 작업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도 빈곤 국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 봉사활동 실적을 위해 참여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청소년들에게 해외자원봉사 활동이 실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가운데 그러한 청소년들에게도 국제개발협력의 취지나 기본정신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약 67%는 교육 이수 경로로 학교 수업을 꼽았다. 방송과 청소년 단체에 대한 응답 비율도 각각 약 35%씩 나타났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익숙한 교육 이수 경로는 학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 중 약 94%는 국제개발협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개발협력 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정부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활동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율이주영·유애라(2014)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일반 성인에 비해 정부의 개발도상국 대외원조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개발도상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은 큰 반면,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일환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외자원봉사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외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해외자원봉사 단위 선발 시 청소년 집단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해외자원봉사 활동은 관심이 있거나 여건이 되는 소수의 청소년 집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후기청소년에 비해 전기청소년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기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후기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적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전기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후기 청소년 모두를 포괄할 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홍보 확대와 개발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 활동 참여는 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기본정신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이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일례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 기회가 없어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점은 실질적인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사업 정보 및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정보를 통합하여 청소년들에게 해외자원봉사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http://law.go.kr/lInfoP.do?lsiSeq=115231#0000>에서 2014년 2월 14일 인출.
권율, 이주영 (2012). **201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이주영, 유애라 (2014).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민 (2011). 청소년국제협력활동의 의의와 과제: 헤브론시 코리아 팔레스타인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사례연구. **글로벌청소년연구**, 1(1), 107-135.

김용주 (2011). 소셜네트워크 형성효과로 본 대학생 해외봉사: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 사례를 중심으로. **소통과 인문학**, 12, 61-67.

김지만, 김예란 (2013). 고독과 빈곤의 조우, 혹은 환대의 경계: 한국 대학생 봉사 여행에서의 주체 형성에 대한 소고. **문화와 사회**, 14, 7-50.

박숙경, 김소희, 오세정 (201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홍란, 박정란 (2014).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기초연구. **청소년학 연구**, 21(2), 139-168.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2012). **2012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활동보고서**.

유성상 (2010). 한국의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탐색. **한국교육 논단**, 9(1), 227-249.

윤철경, 이민희, 박선영, 박숙경, 신인순 (2011).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2011). **G20 이후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NYPI Youth Report.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석열 (2004). 대학생 해외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연구 논총**, 25(1), 43-69.

이재득 (2011). 한성대학교 초기 해외봉사와 학생들의 의식 변화. **소통과 인문학**, 12,

5-31.

이창호, 김연우 (2012).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2), 243-272.

이환, 조수연, 김매이, 정효경 (2011). 대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분석과 분류체계 제안. **교육행정학연구**, 29(3), 1-23.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2012). 해외파견.

<http://iye.youth.go.kr/iye/pgif/odi/view.do>에서 2014년 5월 29일 인출.

최희선 (2010).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KOICA의 청소년개발분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기우 (2010).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에 기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망. **학생생활연구**, 14호, 14-24.

ODA 코리아 (2012).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에서 2014년 2월 13일 인출.

ODA 코리아 (2012). 한국의 개발협력 역사.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에서 2014년 2월 17일 인출.

발표 2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장 불균형과 산업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시장은 공급에 비해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을 비롯하여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중동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불안 요인과 유럽경제의 침체 등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제반 여건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청년취업과 창업의 활성화,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22).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을 포함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삶의 중대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확고하다. 이는 학생 스스로의 선호라기보다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선호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동, 2013: 69). 대학 생활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주로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안정된 직업을 위한 준비와 다양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스펙관리와 학업 경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39%수준이며, 그 중에서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59.5%로 40%에 이르는 대졸자들이 사실상 실업상태이다. 그나마도 취업자들 중 50% 이상이 파트타임과 임시직 등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취업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박동, 2013: 70).

1)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도 고유과제로 수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이러한 시점에서, 이현숙 외(2012) 연구에서는 ‘앞으로 사회가 유형 자산보다 창의성과 지적재산권이 경제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창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혁신적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그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 외(2010)는 창업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과 이로 인한 청년 고용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등 대체로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선영·김희진, 2011: 81).

또한 창업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창업활동이 활발한 사회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종태·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 함양이나 창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know-how)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을 진로지도의 한 분야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사고와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청소년 창업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방안에 관한 교육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출 수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노력이 창업으로 연결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창조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청소년 창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인식 수준에 관한 분석과 국내외 사례 고찰 등을 토대로 올바른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필요한 역량개발 방안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과 정책적 지원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고찰 및 전문가 세미나와 정책개발 워크숍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학술지, 저서, 연구보고서 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개념을 포함하여, 국내외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탐색 및 청소년 창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설문조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청소년 의견조사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3년도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지역, 학교급, 학교유형별로 비례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가정신 관련 인식 및 교육 참여경험 ② 창업 관련 인식 및 교육 참여경험 ③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④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 ⑤ 배경변인(성, 학교급, 학년, 지역, 경제수준, 성격 등) 등이다.

조사 대상	초등학생(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표 본 수	1,270명	2,307명	2,423명
조사 방법	방문면접조사		
표본 추출	확률표집(비례층화집락추출법)		
예비 조사	2014년 5월 9일 ~ 5월 10일		
조사 기간	2014년 6월 16일 ~ 7월 20일		

【그림 2-1】 조사설계

3) 조사문항 개발절차

조사항목과 조사문항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기초로 구성, 전문가자문 및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그림 2-2】 조사문항 개발절차

3. 조사대상자 배경 특성

최종 조사가 이루어진 학교는 총 222개 학급, 6,612명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이 3,098명으로 전체의 46.9%, 여자청소년이 3,514명으로 전체의 53.1%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7.9%(1,184명), 중학생이 37.8%(2,498명), 고등학생이 44.3%(2,930명)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상위권이 28.2%(1,866명), 중위권이 41.6%(2,750명), 하위권이 27.1%(1,795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그룹이 39.6%(2,617명), 중간그룹이 42.3%(2,794명), 하위그룹이 17.6%(1,167명)로 중상위그룹의 비율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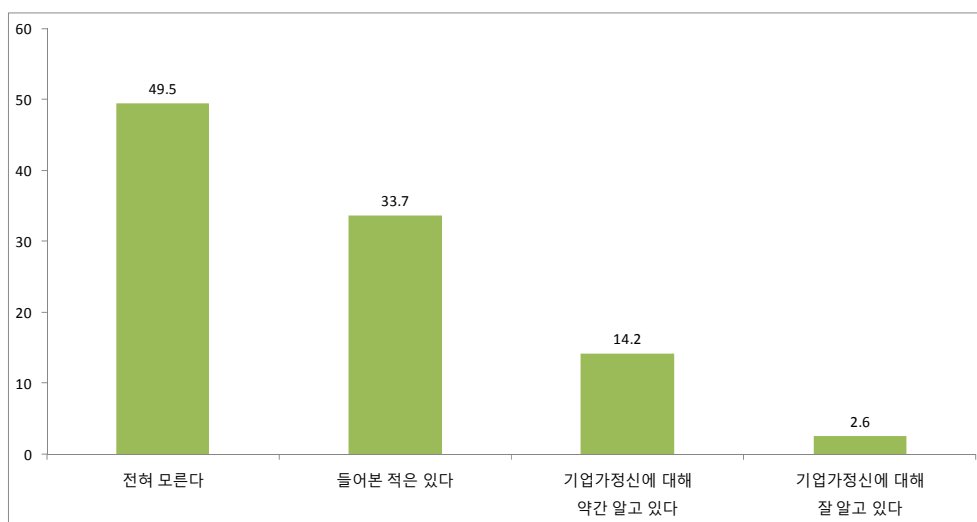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098	46.9	지역	특별시/광역시	2715	41.1	
	여자	3514	53.1		중소도시	3180	48.1	
학교급	초등학교	1184	17.9		읍면지역	717	10.8	
	중학교	2498	37.8	부의 자영업 여부		안 계심	180	2.7
	고등학교	2930	44.3			예	2438	36.9
성적	상	1866	28.2		아니오	3063	46.3	
	중	2750	41.6	모름/무응답		931	14.1	
	하	1795	27.1	모의 자영업 여부		안 계심	132	2.0
	무응답	201	3.0		예	1483	22.4	
경제 수준	상	2617	39.6		아니오	4158	62.9	
	중	2794	42.3	모름/무응답		839	12.7	
	하	1167	17.6	부의 학력		안 계심	180	2.7
	무응답	34	.5		고졸이하	2007	30.4	
성격	조용함	777	11.8		초대졸~대졸이하	2395	36.2	
	보통	2435	36.8	대학원이상		483	7.3	
	활발함	3355	50.7	모름/무응답		1547	23.4	
	무응답	45	.7	모의 학력	안 계심	132	2.0	
부모님 태도	존중하지 않음	521	7.9		고졸이하	2542	38.4	
	보통	1359	20.6		초대졸~대졸이하	2163	32.7	
	존중함	4658	70.4	대학원이상	246	3.7		
	무응답	74	1.1	모름/무응답	1529	23.1		
전체		6612(100)						

4. 연구결과

1.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 관련인식

1)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수준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해 알고 있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정도(49.5%)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들어본 적은 있다’는 청소년이 33.7%, ‘기업가정신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는 청소년이 14.2%, ‘기업가정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청소년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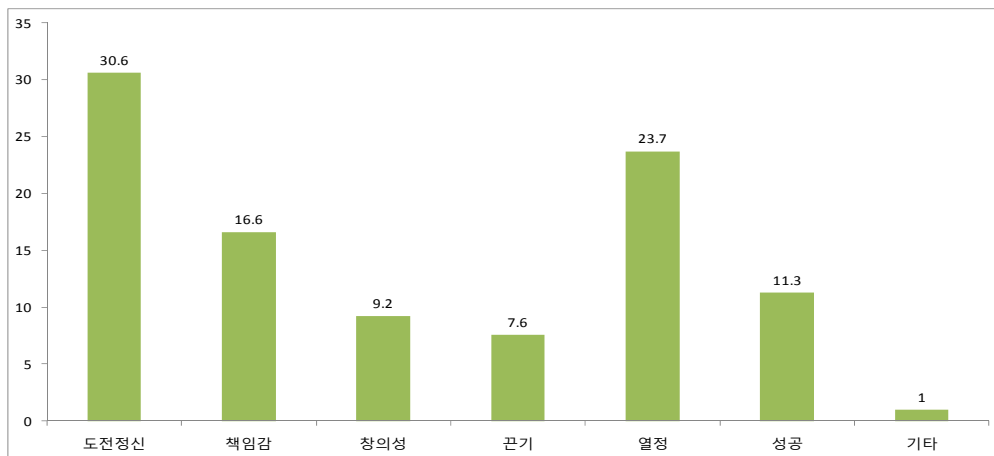


【그림 4-1】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지수준

2) 기업가정신 연상이미지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상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가정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질문하고 복수응답으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도전정신’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열정’(23.7%), ‘책임감’(16.6%), ‘성공’(11.3%), ‘창의성’(9.2%), ‘끈기’(7.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기타’응답으로는‘회사’,‘리더십’,‘이윤 창출’ 등이 연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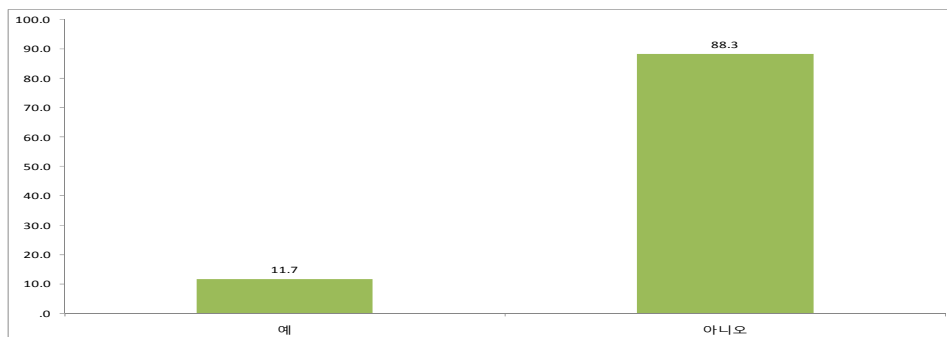


【그림 4-2】 기업가정신 연상이미지

3)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및 만족도

(1)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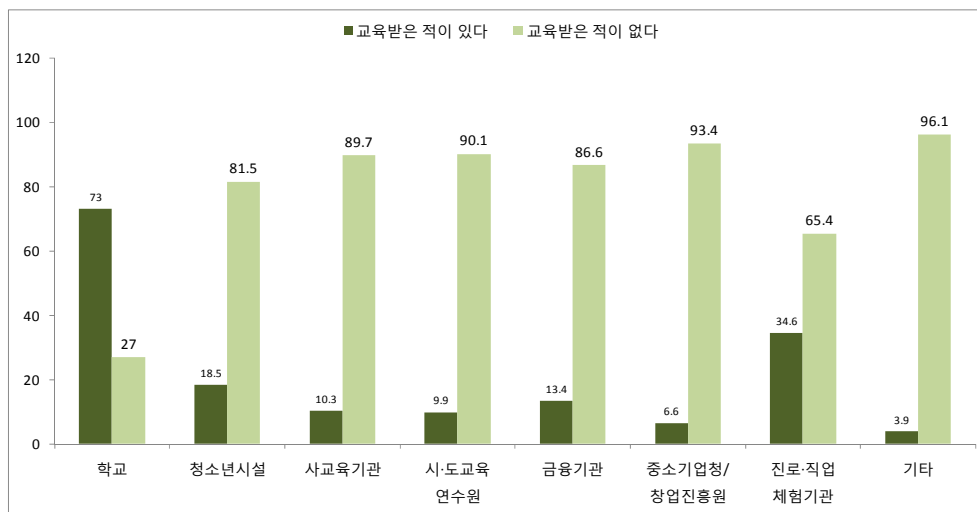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1.7%, ‘아니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88.3%로 나타났다.



【그림 4-3】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2)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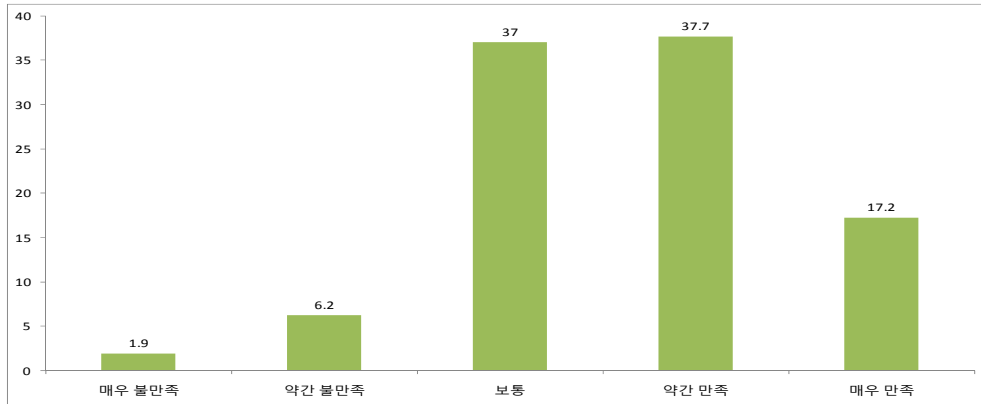
기업가정신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장소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의 참여비율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직업체험기관’(34.6%), ‘청소년시설’(18.5%), ‘금융기관’(13.4%), ‘사교육기관’(10.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직업체험기관 및 청소년시설을 비롯한 그 밖의 시설에서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4】 기업가정신교육 장소

(3) 기업가정신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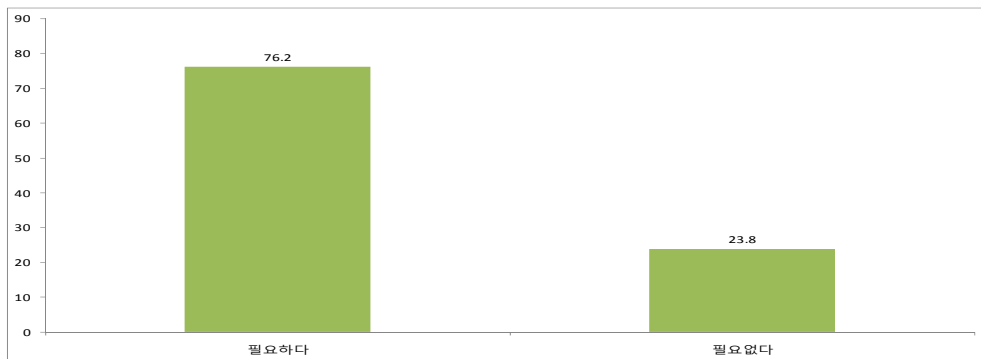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자세히 보면, 교육내용에 만족한다(약간 만족, 매우 만족)는 청소년이 54.9%, 보통 수준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37.0%를 차지했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는 의견도 소수(8.1%)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5】 기업가정신교육 만족도

4)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6.2%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8%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3/4 이상은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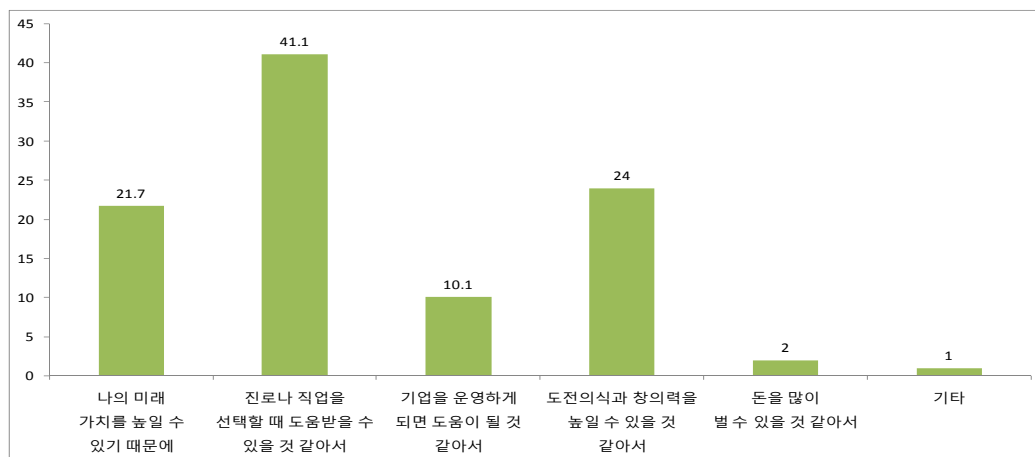


【그림 4-6】 기업가정신교육의 필요성

(1)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4-7]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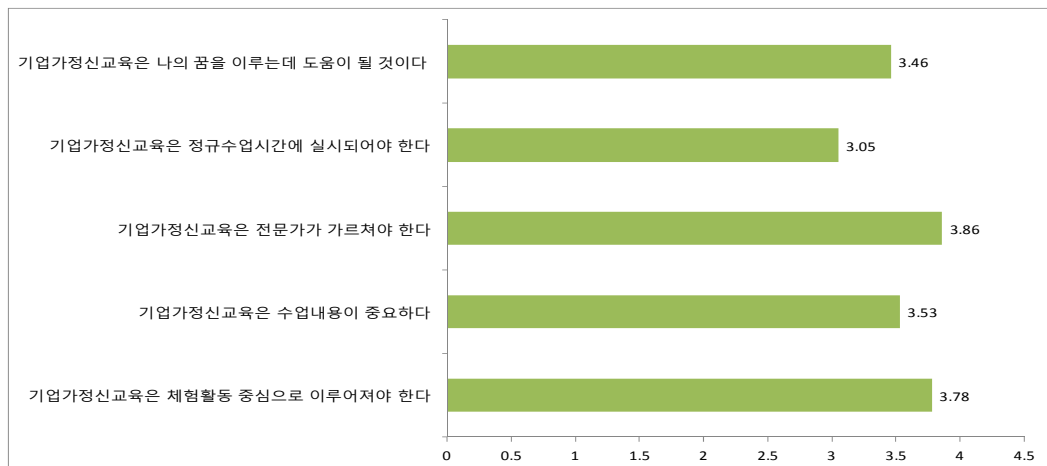
같다. 청소년들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를 41.1%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를 24.0%,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를 21.7%,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를 1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그림 4-7】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한 이유

5)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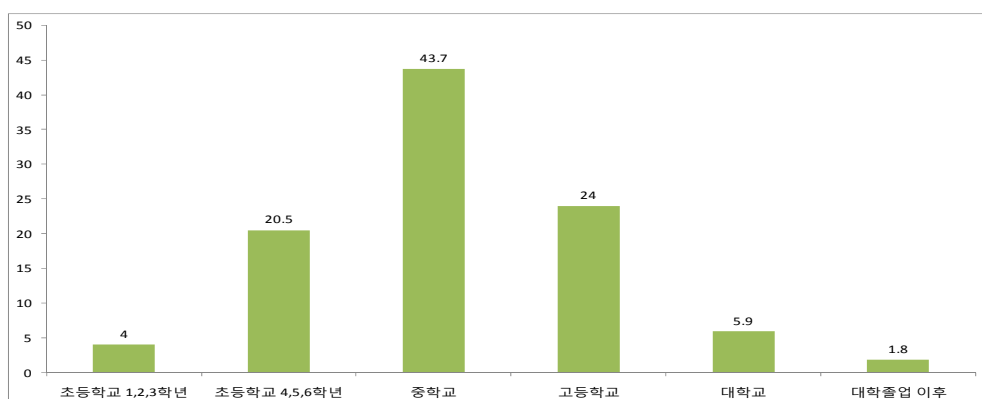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의 결과 및 방법 등과 관련된 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은 전문가가 가르쳐야 한다’를 평균 3.86, ‘기업가정신교육은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를 평균 3.78로 높게 평가했으며, 기업가정신교육에서 전문성과 체험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은 수업내용이 중요하다’를 평균 3.53, ‘기업가정신교육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를 평균 3.46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업가정신교육은 정규수업시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평균 3.05의 보통수준으로 분석되었지만, 청소년들은 5가지 항목 중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했다.



【그림 4-8】 기업가정신교육 결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

6) 기업가정신교육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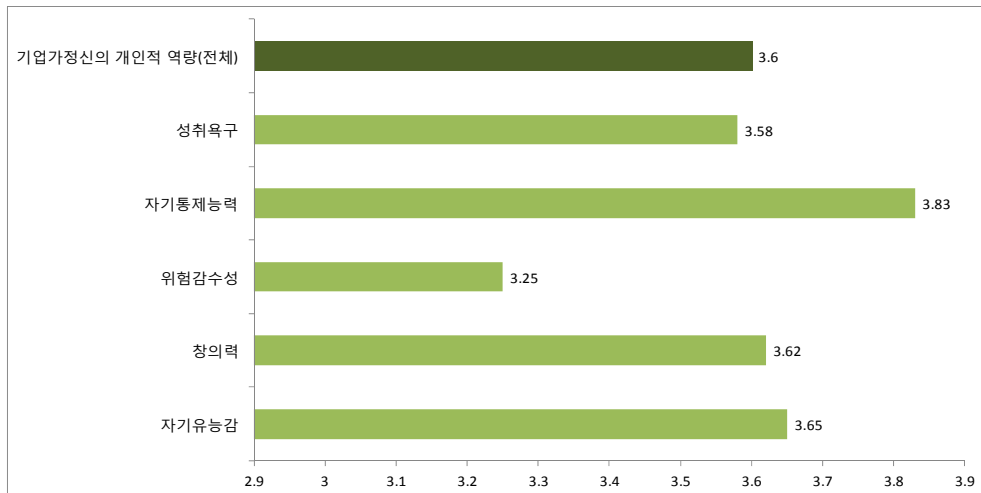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을 언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4-9]와 같이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교육 시작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중학교’(43.7%) 때로 분석되었고, ‘고등학교’(24.0%), ‘초등학교 4, 5, 6학년’(20.5%)의 시기가 좋다고 선택한 청소년들도 다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9】 기업가정신교육 시작 시기

7)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인적 역량 수준 분석결과는 다음의 【그림 4-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 개인적 역량의 전체 평균은 3.60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역량은 ‘자기통제능력’(M=3.83)이었고, ‘자기유능감’(M=3.65), ‘창의력’(M=3.62)이 그 다음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취욕구’(M=3.58)와 ‘위험감수성’(M=3.25) 역량은 전체 평균점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역량들의 각 수준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위험감수성’ 역량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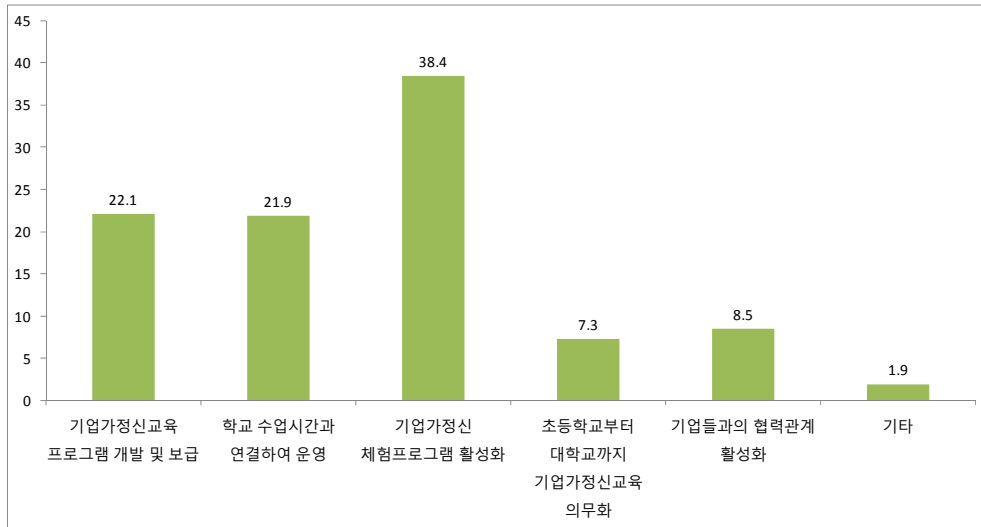


【그림 4-10】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역량

8)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기업가정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38.4%)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2.1%), ‘학교 수업시간과 연결하여 운영’(21.9%)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활성화’(8.5%),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업가정신교육 의무화’(7.3%)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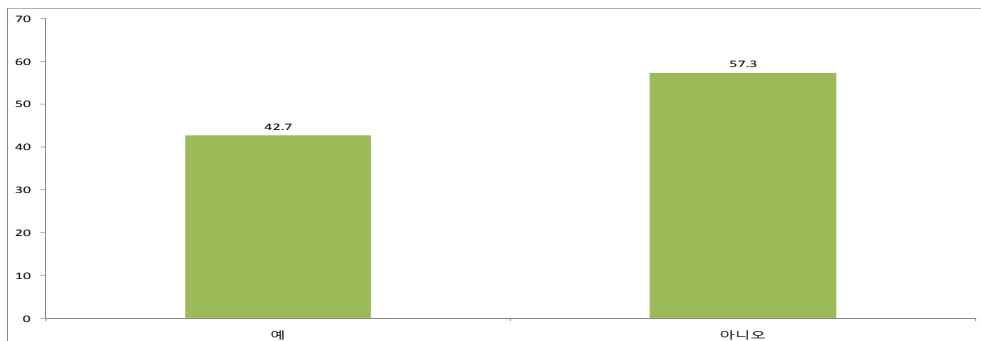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소 제시되었다.



【그림 4-11】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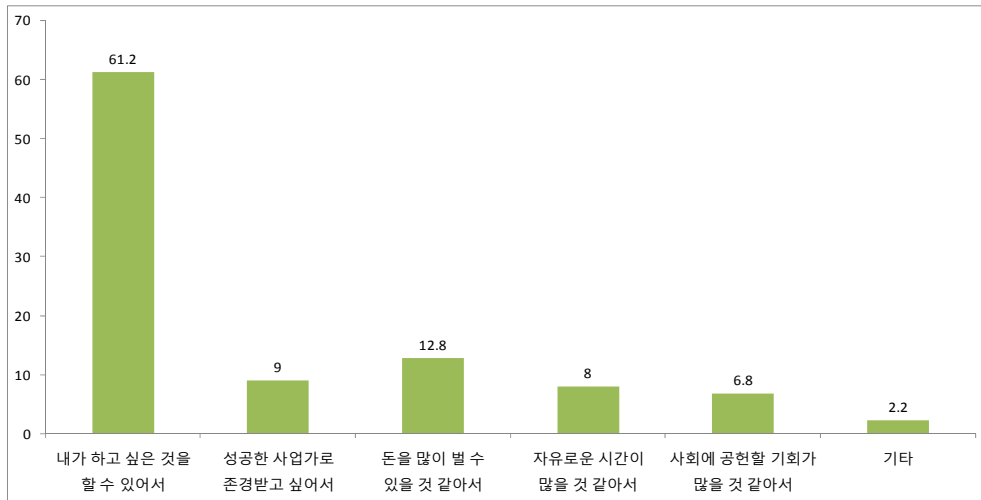
9) 창업 의향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 창업도 고려하는지 알아본 결과,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이 약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청소년 중 42.7%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7.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2】 창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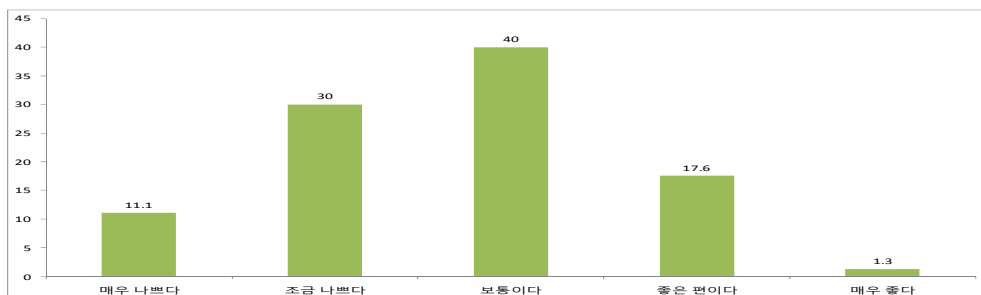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4-13】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

응답자 중 대다수의 청소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61.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12.8%),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받고 싶어서’(9.0%),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8.0%),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6.8%)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10) 창업 환경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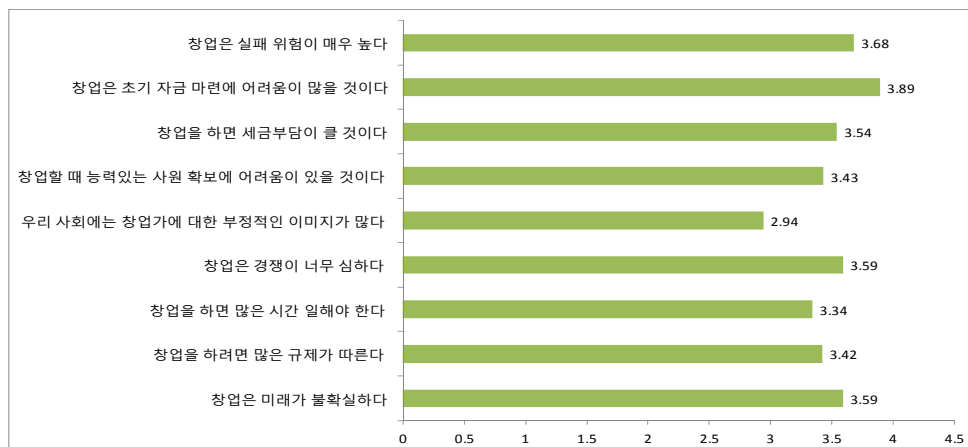


【그림 4-14】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우 나쁘다’~‘매우 좋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했다. 분석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금 나쁘다’라는 응답이 30.0%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좋은 편이다’는 17.6%, ‘매우 나쁘다’는 11.1%, ‘매우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에 그쳤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국내의 창업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환경적 어려움을 9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5점 척도로 질문함으로써 창업 장애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은 제시된 항목들에 대해 대체로 보통 이상의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창업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M=3.89)는 항목을 가장 큰 장애요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창업은 실패 위험이 매우 높다’(M=3.68), 한편, ‘우리 사회에는 창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는 인식은 평균 2.9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5】 창업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

5. 결론 및 제언

먼저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교사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급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운영 및 활성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문헌 고찰과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정책개발 워크숍 과정을 통해 도출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불릴 수 있는 창조경제시대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규교육과정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일부 편성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 교원 양성과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및 창업교육 교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청소년 정책과 다양한 활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사회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체험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함양되고 실천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추 수 있는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활동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참여와 실천이 기업가정신 강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생애전주기적 기업가정신 학습체계' 운영 방안으로 초·중·고는 기초단계→역량인식단계→창조적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습과정 운영하고, 대학생은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창업단계→성장 단계로 운영하여 초중고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성과목표 및 학습내용을 체계화시킨 기업가정신 학습모형을 마련해 한다.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업과 학교 간의 연계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 교과담당 교사, 진로지도 교사, 대학생, 청년창업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도록 연수 및 자격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모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정책 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실천방안으로 먼저 지역사회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학교, 학부모, 학생, 기업과 단체 등이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하는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를 수렴하여 총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산하에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활동센터(사업총괄본부)」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시도교육청 및 학교, 그리고 청소년 단체와 기관들과 적극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 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코디네이터 기관 간 협력 모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활동 기관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기업가정신 함양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순택 (2004). 차별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헤르트 홉스테드(Greet Hofstede)의 문화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9, 43-76.
- 김선순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초등학교** (전문가위크숍 14-S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승경, 김명희 (2013).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창조경제 종합연구 13-01-23).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연정, 노병수 (2012).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6), 23-31.
- 남정인 (2013). **창업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춘애 (2012). **비즈쿨 교육특성, 사회적지지 및 교육기반특성이 학습성과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병수 (2011).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준호 (2011). **문화콘텐츠 창작가들의 창업태도 및 1인창업전문기업 육성 방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동, 김안국, 황규희, 이종선, 이봉주 (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기본연구보고 2010-10).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반성식, 김상표, 송경모, 조동환, 박종해, 차민석 (2010).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GEM) 2009 한국보고서**. 서울: 중소기업청.
- 배종태 (200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방안** (2009년 경영관련 통합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자료집). 서울: 한국경영학회.

- 배종태,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111-128.
- 송영수 (2010).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 서울: 자유기업원.
- 안선영, 김희진 (2011). 창업,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장영화 (2013). *지식창조사회에 부합하는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와 효과: 교육사례를 바탕으로* (세미나 자료집 13-S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미란 (2011). 와인소비자의 문화적 가치와 와인선택속성, 만족도 관계연구: Hofstede 이론의 적용. *외식경영연구*, 14(1), 223-242.
- 중소기업청 (2009). *기업가정신 역량 평가지표 개발 최종보고서*. 서울: 창업진흥원.
- 하규수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전문가워크숍 14-S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청소년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서울: 창업진흥원.
- 홍윤경 (2014). *청소년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강화방안* (전문가워크숍 14-S3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ovin, G. & Slevin D.P. (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Crant (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ship A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 in work-related values*(Abridged edi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Hofstede. G (1995). *Cultures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 hill.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omer (1990).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Some Additional

-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7(1), 78-87.
- Houghton, J.D. & Neck, C.P.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Keller, K.L. (1998). *Strategic Brand Management: Building, Measuring, and Managing Brand Equit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Ket al (2007).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Marketing Information in the Performance of S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92-611.
- Krueger (2003).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MacKenzie (1986). The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as a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A test of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2), 130-144.
- Murphy, P.J. & Liao, J. & Welsch, H.P. (2006). A conceptual history of entrepreneurial thought. *Journal of Management History*, 12(1), 12-35.
- Schumpeter, J.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NY: Harper&Row.
- Stevenson, H. (1983).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Timmons, J.A. (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Homewood, IL: Irwin.
- Zhao, H., Seibert, S.E., & Hills, G. E. (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 1265-1272.
- <http://www.korea.kr/common/searchPrint.do>(정책브리핑.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발표) 2014년 3월 21일 인출.
- <http://www.venturesquare.net/42675>(벤처스퀘어; 기업가정신교육설계(벤처정책연구보고서 요약본). 2014년 2월 26일 인출

발표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김 영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 사업연구 II¹⁾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오늘날 청소년의 대부분의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도시들이 아동·청소년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문제에 대한 인식부재와 해결 노력이 정책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첫째는 청소년의 행복도 수준은 2011년 세계 가치조사의 행복감 응답 비율은 프랑스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7% 등에 비해 9.4%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2009년 이래 5년 연속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지리적 여건의 악화이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변화 현상과 연계된 것으로 핵가족화, 이혼가정 증가, 조손가정 증가 등 가족의 보호와 지지 기능의 약화, 그리고 상대적 빈곤층 증가, 학교 폭력과 괴롭힘 심화, 여가의 부족, 경쟁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 등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이 위협받고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 마련이 지역단위의 포괄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 중심의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청소년의 생활환경 체계와 생활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 없이 추진되어, 청소년의 생활공간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1)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도 고유과제로 수행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못하였고(김기현, 임희진, 장근영, 김혜영, 황옥경, 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지역사회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정책과제들을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하여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추진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목표와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만이 계획되어 있을 뿐, 추진 체계와 내용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인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를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참여와 권리의 실현 방안을 정부는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넷째는 급격한 청소년 인구 감소와 더불어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정책 내에서의 소극적 변화이외에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역할 통로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적합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없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해결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행복지표의 개발 및 측정하는 것과,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평가하고 제안하는 청소년모니터링단 운영, 그리고 청소년의 차별적 주변 환경 개선, 청소년의 이익 확대 및 참여통로의 확보 등 종합적 차원에서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사업을 마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정사업 연구 연도별 추진 계획

연 도	분야	지속사업	연도별 사업
2013년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행복수준 중심) -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들의 실태진단 (전체영역) - 정책 제언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추진 방향과 과제안에 대한 기준 및 발전방향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 전문가 등)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보고서 발간
2014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 (2차년도부터 본원 고유사업예산으로 운영)	-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연 도	분야	지속사업	연도별 사업
2015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수정,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도시 조성 추진 전략 연구 - 청소년이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년도)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 - 지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시군구 단위) - 지자체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1차년도 실시	-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청소년제안의견 보고서 발간
2016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추가,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 - 시범사업 2차년도 실시	- 1차년도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 시범사업 추가 및 시범지자체 확대 실시
2017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수정,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행복지표 영역별 지역사회 추진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행복도시 조성 사업관련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사업 연구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 - 시범사업 3차년도 실시 -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2차년도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 2차 시범사업 추가 및 시범지자체 확대
2018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추진 방향과 과제안에 대한 기준 및 발전방향 수립 - 청소년 행복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 시범사업 전국 확대 수행	- 청소년행복도시 조성 추진 담당자 연수

연 도	분야	지속사업	연도별 사업
2019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청소년 행복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 행복도시 청소년 만족도 분석 - 청소년 행복도시 사업 추가 개발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청소년 행복도시 신규지자체 선정 및 확대 - 청소년행복도시 조성 추진 담당자 연수	- 지자체 행복도시 우수사례 발표
2020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파급효과 분석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청소년행복도시 조성 추진담당자연수 - 지자체 행복도시 우수사례 발표	-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 지자체 행복도시 신규사업 추진
2021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청소년 행복도시 청소년 만족도 분석 - 청소년 행복도시 정책과제 추가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행복도시 조성 프로그램 개발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운영 - 청소년행복도시 조성 추진담당자연수 - 지자체 행복도시 우수사례 발표	-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 지자체 행복도시 신규사업 추진
2022년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행복 영역별 행복도시 조성 성과보고서 - 지자체 행복도시 신규사업 추진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청소년행복도시 조성 추진 담당자 연수 - 지자체 행복도시 우수사례 발표	-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2. 연구방법

1) 청소년행복 수준 진단 및 분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에 대한 지표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2013년도 1차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총 6개 영역 157개의 항목(객관지표 69개, 주관지표 88개)으로 구성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를 구성하였다. 이 지표는 학급단위 자기응답식 지표와 2차자료를 활용한 객관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UNICEF의 청소년 행복지표를 기본 틀로 설정하고, 그 외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지표들을 지표를 통합한 것이다.

2014년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도의 지표를 토대로 총 8개 영역 64개의 항목(객관지표 30개, 주관지표 34개)으로 구성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를 구성하였다. 이 지표는 개인단위 자기응답식 지표와 2차자료를 활용한 객관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1차 년도(2013년)에 개발된 157개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 간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표 타당도의 재검점 및 지표 체계 구성 검토 및 수정·보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방법

표 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타당화 과정

	2013년 청소년 행복 지표개발 및 추진 방안연구(1차년도)	2014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2차년도)
문헌연구	•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구성요소 도출	
평가지표 예비 문항 구성	• CFCI(Child Friendly Cities Intimate)의 지표와 국내 환경을 반영한 지표 1차 초안 구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의 1차 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내용타당도 검증(델파이 조사)	• YHCI의 주관적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문항을 구성하고 문항별 전문가 타당도	• 1차년도(2013년)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평가결과 및 예비조사 결과를 통한 최종 지표 선정	중요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 간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표 타당도의 재점검 및 지표 체계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표를 선정
예비조사			이론 탐색과 심층면접을 통해 예비 문항 선정	
본 조사	조사 모집 단	청소년 조사	전국 16개 시도 중1~고2 재학생 전체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2 재학생 전체
		교사	해당 학급 담당교사 전체	해당 학급 담당교사 전체
		학부모	해당학생을 자녀로 둔 성인남녀 전체	초4~고2학생을 첫째 자녀로 둔 성인남녀 전체
		공무원	17개 시도 청소년 담당 공무원 및 227개 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	17개 시도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최종 표집	청소년	16,510명	10,000명
		교사	820명	300명
		학부모	1,944명	3,000명
		공무원	600명	150명
	조사 방법	청소년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교사	(개인단위)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학부모	학생을 통한 우편조사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공무원	개인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지표	지표 영역	- 개인수준, 생존영역(경제적웰빙, 건강/보건), 보호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 청소년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차원의 노력 - 총6개영역 - 최종지표수157개(객관지표69개, 주관지표88개)	- 경제,건강,안전,교육,관계,활동,참여,개인 특성 - 총8개영역 - 최종지표수64개(객관지표30개, 주관지표34개)
		지표분석 방법	z-score/가중치 적용	z-score/가중치 적용 안함
		청소년, 학부모, 교사, 공무원 조사 활용	영역별 인식 차이 비교(※7개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 학부모, 교사, 공무원만 비교)	주관지표 문항별 인식차이 비교
		기타	각 영역에 대한 교사의 인식 수준 이 청소년, 부모에 비해 높음(놀이 및 여가 제외)	- 영역별각지역의지수비교 - 지역별각영역지수비교

② 17개 시·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주관적 지표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1차년도 조사는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삶의 질 현황 및 청소년 행복지표의 주관적 항목의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4년 2차년도 조사는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개요

	청소년 조사	교사 조사	학부모 조사	공무원 조사
조사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2 재학생 전체	해당 학급 담당교사 전체	초4~고2 학생을 첫째 자녀로 둔 성인남녀 전체	17개 시·도 청소년 정책담당 공무원
표본 수	10,000명	300명	3,000명	150명
조사기간	2014년 6월 12일 ~ 7월 28일			7월~8월
조사방법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개인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개인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기타		청소년대상 조사표본 학급담당 담임교사, 같은 학년 담당교사 순으로 표집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집률 없음	전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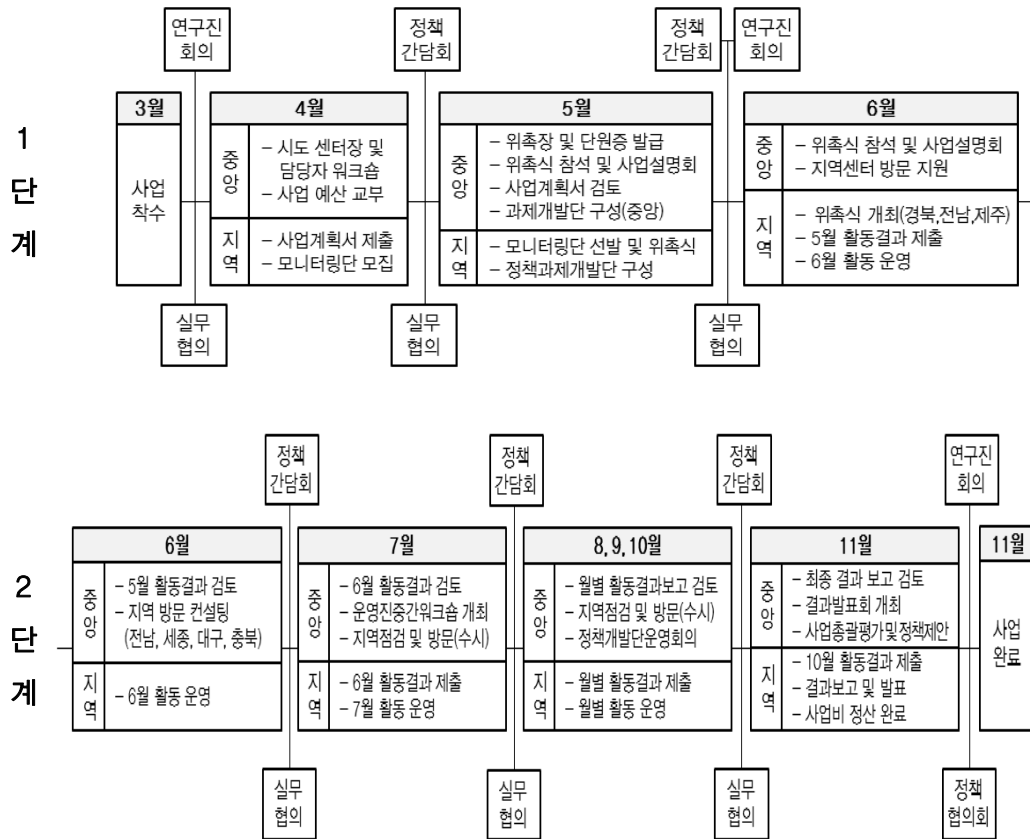
③ 정량 및 정성자료 분석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주관적 지표와 수집된 객관적 지표의 정량적 자료는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 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초통계분석 방법에 더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의 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계량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 또한 지역사회 진단 지표에 대한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의 정성적 평가 자료는 청소년의 의견들 중 의미있는 언어를 도출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수행하였

2)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① 17개 시·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여건 분석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크게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정책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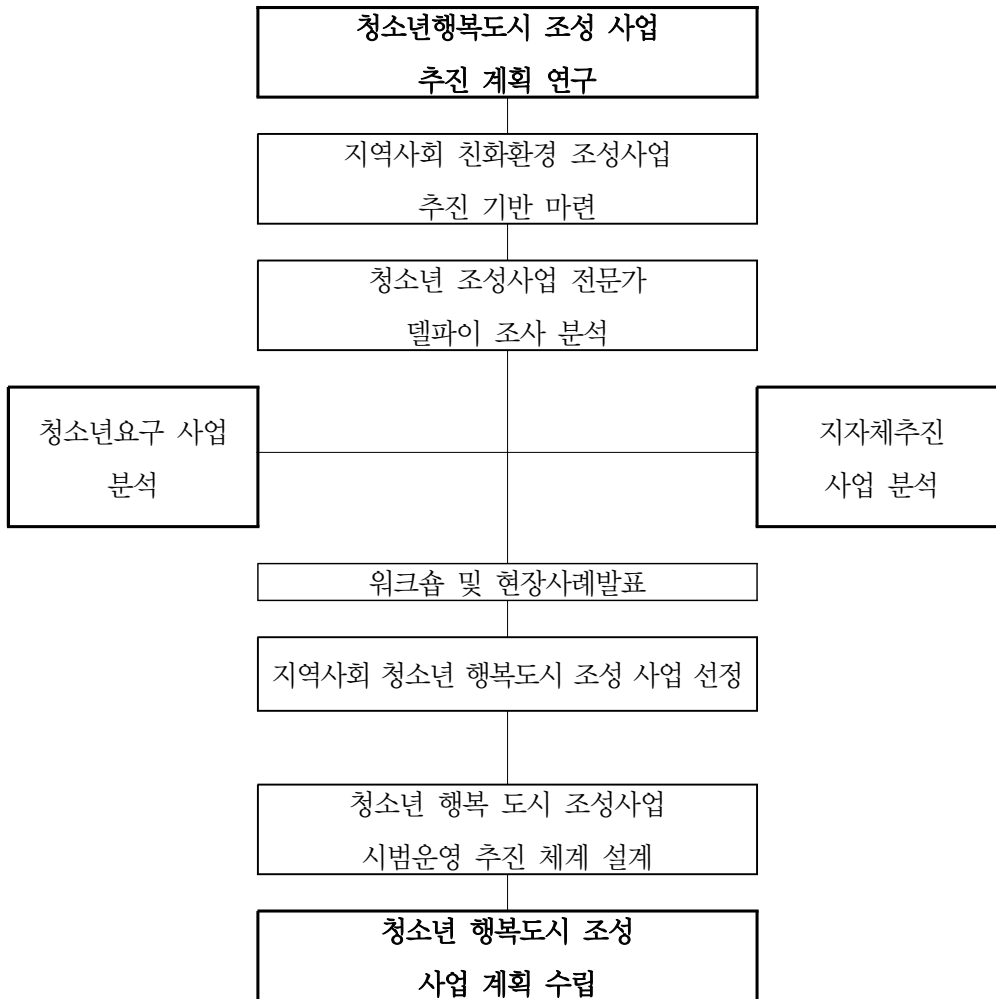


【그림 1-2】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추진절차]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의 주체자이자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를 본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17개 시·도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수준의 진단과 생활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공감하는 정책제안에 참여 할 수 있도록 ‘2014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북을 제외한 16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 의뢰하여 총 204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3)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계획수립 및 연구

①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연구 추진체계



【그림 1-3】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연구 추진체계

4. 연구결과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분석 결과

(1) 행복지표 비교 분석결과에 기초한 종합진단

- 16개 사도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만이 평균(100)이상이며, 전반적으로 도지역의 종합지수가 광역시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종합지수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의 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지역(경남, 대전, 충북)에서는 평균 이상의 지수가 다수임.
- 전국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가장 많은 영역은 주관적 웰빙이며, 안전-교육-관계 영역의 경우도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아, 국가수준에서 이들 영역의 수준을 최소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의 지수 값들이 일관성을 보이기보다는 평균 이상인 것과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 각 지역별로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거나 크게 낮은 영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 필요

(2) 공간분석 결과에 기초한 종합 진단

- 종합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표준편차가 +1 이상으로 종합지수가 높은 지역은 제주와 경남이며, 표준편차 -1 미만으로 종합지수가 낮은 지역은 경북과 서울

- 공간자기상관 분석 결과 대전 지역은 경제 영역과 참여 영역에서 Hot Spot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지역은 교육 영역에서 Cold Spot으로 나타남.
- 대구는 안전 영역에서 경남은 참여 영역에서 주변 지역들과 상호작용이 있으나,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지수 값을 가지는 부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지며, 광주-경북-제주 지역은 건강 영역에서 주변지역에 비해 낮은 지수 값을 가지는 부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짐.
- 공간가중상관분석 결과, 종합지수는 교육, 관계, 활동, 참여, 주관적 웰빙 영역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간가중회귀분석 결과, 종합지수와 교육 영역, 종합지수와 관계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이며, 종합지수와 참여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광주, 전북이고, 종합지수와 주관적 웰빙 영역 간의 영향력이 높은 지역은 제주, 전남, 광주로 분석됨.
- 종합지수에 대한 교육 영역, 관계 영역, 참여 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의 공간가중회귀 분석 결과, 해당 영역의 약점을 보완하여 개선해야하는 지역으로 관계와 참여 영역에서는 서울과 인천,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교육 영역에서는 두 권역들을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으로 분석됨.

2)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계획 수립 결과

(1) 사업 영역 분류

○ 조성사업 영역 분류 결과

구분	청소년 제안	지자체 추진사업	합계
경제영역	7개	7개	14개
건강영역	3개	3개	6개
안전영역	19개	9개	28개
교육영역	12개	9개	21개
활동영역	27개	17개	44개
참여영역	31개	7개	38개
합계	99개	52개	151개

- 경제영역 : 청소년 제안사업 및 지자체 추진사업이 각 7개로 제시되었으며, 이 영역에 대하여 청소년이나 지자체의 관심이 낮은 편이며, 이는 청소년이나 지자체 청소년담당자가 경제영역과 결부된 추진사업이 거의 없는 편임. .
- 건강영역 : 건강영역은 전문가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역의 중요성 낮아 거의 추진사업이 없는 실정임. 이 결과는 다른 면에서 볼 때, 청소년정책의 핵심과제가 아닌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기초적인 건강영역을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소수가 아닌 다수의 청소년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문제가 핵심이슈로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고 있음.
- 안전영역 : 이 영역에서는 청소년은 19개로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는 9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정책추진사업과 청소년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에서 차이가 있으며, 추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제 개발이 요구됨.
- 교육영역 : 청소년 12개, 지방자치단체 9개로 타 분야에 비해 높지 않는 편임.
- 활동영역 : 총 44개 사업내용으로 청소년 27개로 요구가 많은 편이며, 지방자치단체 17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현재 청소년기본정책의 핵심추진영역이 청소년 활동분야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음.
- 참여영역 : 이 영역은 청소년의 요구사업은 매우 많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은 매우 낮은 편으로 청소년 욕구와 실제적인 사업추진 간에 가장 많은 괴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청소년 행복도시 사업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분야로 여겨짐

(2) 외국사례 분석 결과

- 아일랜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은 아동의회추진, 정부 내 아동 옴부즈맨 기구 설치, 아동의견 반영을 위한 정부토론회 및 지역토론회 개최, 가정을 위한 가족그룹협의, 아동이익 대변을 위한 소송후견인 서비스, 아동권리 행상에 대한 유럽협약, 보호 아동을 위한 대변과 항의 과정 운영, 의료서비스 동의, 아동종단연구, 아동프로그램 연구, 삶의 질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아동복지지표 개발, 정부 아동보고서 발행, 아동연구부서 확충, 아동 영향 평가, 아동서비스 품질 기준 설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 개발

- 스페인 사례 중 세비아 및 코슬라다 지역은 청소년친화도시 계획의 한 부분으로 청소년 복지를 지지하는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자원의 조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평가도구를 개발함.
- 영국의 런던시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시차원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전략 행동계획’을 수립함.
- 아르헨티나의 보카-바라카스 지역 사례에서는 GUIC(도시 환경에서의 청소년성장) 프로젝트 수행에서 청소년의 직접적인 참여 통로를 개적함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제안하고 있으며, 추진 사업으로는 걸리버 지도제작 활동, 청소년의 지역환경 사진 전시회, 도시 반공간 재활용 계획 참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자치 정부에 이한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되어 도시계획 정책에 반영
- 브라질의 Barra Mansa시의 아동·청소년참여예산의회(CPBC) 사례는 가장 혁신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례이며, 이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 분야로서 ‘Barra Mansa’ 시의회에 의해 발전됐으며, 지역 사람들의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행동 계획의 하나이며, 이 계획의 목적은 아동·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일으키고 촉진하기 위한 것임

5. 결론 및 제언

1) 지표 개발 및 진단 분석 결론

- 16개 시·도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만이 평균(100)이상이며, 전반적으로 도지역의 종합지수가 광역시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종합지수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의 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지역(경남, 제주, 대전, 충북)에서는 평균 이상의 지수가 다수임.
- 전국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가장 많은 영역은 주관적 웰빙이며, 안전-교육-관계 영역의 경우도 평균 이하의 지수를 갖는 지역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아, 국가수준에서 이들 영역의 수준을 최소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의 지수 값들이 일관성을 보이기보다는 평균 이상인 것과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구체적인 정책 수립 시, 세부영역지수 및 지표 분석의 결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지수와 연계된 법률 및 정책 사업을 실효성 있게 검토·조정하는 것이 필요
- 각 지역별로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거나 크게 낮은 영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 필요
 - 서울특별시: 안전영역(103.5)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평균보다 낮고,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주관적 웰빙(103.4)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으로, 건강(101.1), 안전(100.9), 교육(100.3) 영역이 평균 이상임.
 - 대구광역시는 건강(103.1), 안전(104.3), 교육(102.2) 영역이, 인천광역시는 건강(101.6), 교육(102.2), 관계(103.4), 활동(101.3) 영역이, 광주광역시는 경제(101.2), 교육(100.0)이, 대전광역시는 주관적 웰빙(99.4)과 교육(99.0)을 제외한 전 영역이, 울산광역시는 안전(101.5), 교육(101.6), 활동(100.8) 참여(101.0) 영역이 평균 이상임.
 - 경기도는 건강(100.4), 안전(101.7), 활동(101.8), 참여(100.9) 영역이, 충청북도는 안전(98.9)과 교육(99.7)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충청남도는 경제(103.4), 건강(100.6), 관계(102.0), 참여(102.0) 영역이, 전남은 경제(101.8), 건강(103.1), 활동(103.0)이, 활동지수(98.3)를 제외한 전 영역이, 제주도는 건강(96.4)과 안전(99.8)을 제외한 전 영역이 전국 평균 이상임.
 - 전북은 경제(98.5), 안전(97.8), 교육(96.7) 영역이 전국 평균 이하이고, 경상북도는 경제(101.1)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강원도는 활동(100.4)을 제외한 전 영역이 평균 이하임.
- 공간 분석 결과에서 종합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표준편차가 +1 이상으로 종합지수가 높은 지역은 제주와 경남이며, 표준편차 -1 미만으로 종합지수가 낮은 지역은 경북과 서울임.
 -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1 표준편차 미만)은 다음과 같음.
 - 경제 영역: 강원, 부산
 - 건강 영역: 울산, 제주, 광주, 경북
 - 안전 영역: 인천, 광주
 - 교육 영역: 강원
 - 관계 영역: 광주, 서울
 - 활동 영역: 광주, 대구

- 참여 영역: 서울, 경북, 대구, 광주
- 주관적 웰빙 영역: 경북, 서울
- 경북은 건강, 참여,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서울은 관계, 참여, 주관적 웰빙에서의 지수 개선이 필요
- 광주는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의 6영역에서 모두 -1 표준편차 미만으로 지수 점수가 낮게 나타나 일부 영역만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광주시가 전반적인 개선 노력을 하도록 유도·지원 필요

2) 행복도시 조성사업 구상

① 기본 관점

-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도시재구조화 운동이다.
- 또한 청소년 태어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개인의 자아실현, 역량개발, 그리고 안전한 성장체계 구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환경을 만드는 지역공동체 운동이라 볼 수 있다.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은 청소년 친화도시와 연계된 개념으로 제5차 청소년정책에서 통합성, 보편성, 청소년중심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청소년정책과 포괄적, 균형적 청소년정책의 최상위 달성지표인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② 비전과 목표

- 비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의 기본관점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터전을 균형적,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안전한 삶의 공간 제공과 자유로운 역량 개발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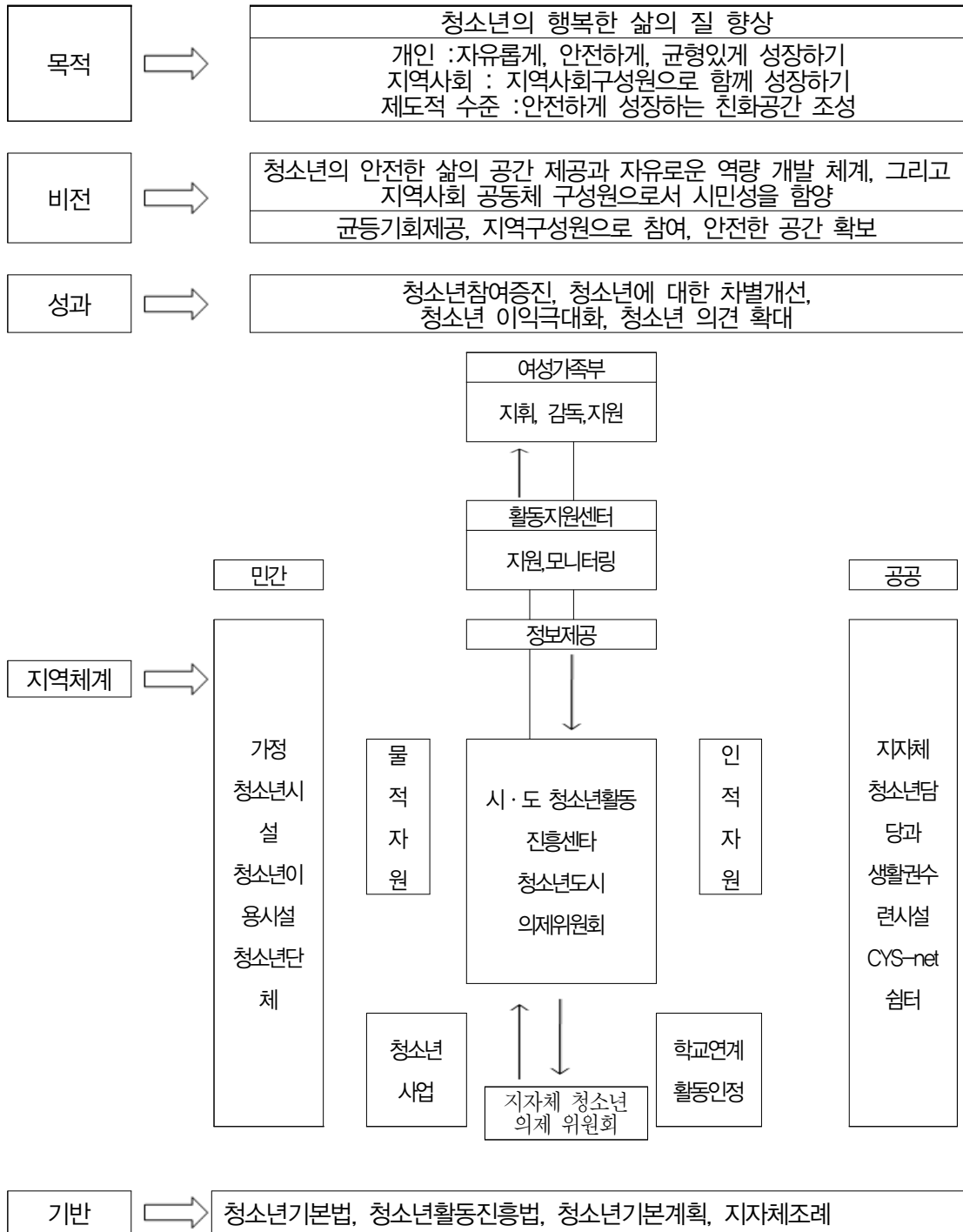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개발한다.

- 목표 : 청소년의 행복을 저해하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 소득, 성별 등 청소년의 성장에 불리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해결하고자하는 비차별 정책의 개발이다.
- 청소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 개발로서 정부나 관련기관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청소년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 개발이다.
- 청소년의 참여를 확보하고 의사결정 통로를 개선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 사안에 대해 청소년의 견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방안 개발이다.

③ 방향

- 청소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 참여의 기회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 여가활동을 통한 자연스럽게 지역문화 체험하기
- 일상 속에서의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디딤돌 되기
- 청소년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함께 성장한다.
-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참여기회제공)
- 관계망 : 네트워크 구축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시스템 구축(보호복지 체계 구축)
- 청소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도시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환경 정비
- 청소년 여가기반 조성 : 기회를 제공하는 여가기반 및 연계망 조성
- 청소년 참여제도 구축 : 인정체계 구축
-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지원조례 구축 : 지원체계 구축

④ 추진 개념도



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행복도시 추진 전략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행동전략이 필요하다.

- 청소년중심 :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고 청소년의 요구와 인식을 고려해야한다.
- 가족중심 : 지자체 등 외부에서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공평성 : 지역사회내의 모든 청소년은 각종 서비스의 접근이나 참여 및 혜택에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받아야한다.
- 포괄성 :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경험과 문화 및 삶의 방식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야한다.
- 실천중심 :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전달은 서비스 대상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을 통하여 결과 산출을 위해 집중해야한다.
- 통합성 :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전달은 청소년 욕구에 대한 통합된 분석과 정책계획,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하여 결과산출을 목표로 집중적이고 효과적 이루어져야한다.

○ 조성 사업 계획수립 형태

- 하나의 도시가 청소년 행복도시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체계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청소년 행복도시 사업 계획’이라 볼 수 있다.
- 이러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단기계획(3년이내)과 중기계획(5년-10년), 장기계획(10년-20년)의 구상과 더불어 계획 추진에 요구되는 단위사업을 선택하고 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하고, 이의 성과를 위해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소년 행복도시 사업은 청소년 행복도시의 기본이념과 목표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전담 기구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에서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행정-지방행정-복지행정으로서 상호 연계되어 총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이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우선되어야하며, 지역사회 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한 가칭 ‘청소년 행복도시운영협의회(공공/민간 참여)’를 구성해야한다.

- 지역 내의 청소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교육, 활동, 문화 등의 청소년 서비스시설의 균형적 확충 계획이 요구되며, 필요시 기존 청소년시설에 대해 통합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지역단위의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 여기에는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체계의 구성요소, 청소년 행복도시 추진 위원회, 전담인력 및 중요사업에 대한 결정, 예산의 조성과 집행, 하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청소년 행복도시에 대한 국제적 인정 획득
 - 청소년 행복도시의 기본적 출발은 ‘UN아동권리협약’의 준수와 청소년기본법의 실현이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행복도시의 준거 모형은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유니세프는 199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니세프는 이를 평가하여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청소년 행복도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평가인정을 획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사업 세부추진 사업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세부추진 사업은 경제영역, 건강(복지)영역, 안전영역, 교육영역, 관계영역, 활동영역, 참여영역으로 구분됨.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운영, 청소년 건강인증제도, 안전미준수 업체 개인 신고제 도입, 희망수업제, 가족 휴가 수당제,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1:1 매칭 사업 수행, 지자체 청소년 옴부즈맨 제도 도입, 지자체 시정활동 청소년 모니터링 활동 운영 등을 제시함.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국제신문(2014). 청소년과 문화향유권. 2014. 02. 14. 26면.
- 국토연구원 (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총괄보고서 (국토연 2011-35). 경기: 국토연구원.
- 권일남, 오해섭, 이교봉(2012). 청소년활동론. 고양: 공동체.
- 김기현, 임희진, 장근영, 김혜영, 황옥경 (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 201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남정. (2010).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의 촉진 및 장애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법과
인권교육연구, 3(3), 15-47.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1-33.
-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재호 (2007). 행정계획론 소고. 법학연구, 18(1), 49-79.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정윤미 (2013).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227-256.
- 김지경, 정윤미 (2014).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예산에서의 국고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
학연구, 21(6), 369-392.
- 김진희, 박일섭, 정진혁 (2011). 공간가중회귀분석을 이용한 통행발생모형. 대한교통학회
지, 29(2), 101-109.
- 김채욱, 송운강(2006). 관광과 삶의 질에 관계. 관광연구저널, 20(2), 217-235.
- 노화준 (2008). 정책평가론: 프로그램성과와 정책혁신의 효과 평가. 파주: 법문사.
- 박선영, 장미, 김주희, 진영선(2013). 청소년활동론. 파주: 정민사.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홍운 (2012). 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 파주: 대영문화사.
- 심수진, 이희길 (2010). 통계개발원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Ⅵ권 -삶의 질 지수 작성방안- (연구보고서 2009-09). 대전: 통계개발원
- 여성가족부(2004). 청소년특별회의(시범).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05).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06).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07).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08).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09).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10).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11).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3).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14). 2014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 위키백과(2013). 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Joan Yoo (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이상화·이혜원·최경옥 (2009). 아동,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청소년 복지연구, 11(3), 129-148.
- 이양재, 김선웅 (1997). 서울시 성장관리 모니터링 체계구축.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익섭, 신은경, 이승기, 이준일, 유동철 (2009).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314-01).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이지연, 노시학(2003). 청소년관광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청소년-교사 집단간 비교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7(4), 325-340.
-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1), 269-301.

- 이희길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콜로키움Ⅱ：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지표 작성방법. 콜로키움자료집 (14-S15),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이희길, 심수진, 박주언, 배현혜 (2013). 제 1장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2013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Ⅳ권. 통계청.
- 이희연, 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제2판. 서울：문우사.
-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보고 08-R03-1).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이혜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Ⅰ：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3-R11).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민현숙, 이세원, 송운정 외 (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연구보고 2010-11). 서울：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 이재연, 김영옥, 안동현, 박수연, 김홍희 (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7-06). 서울：육아정책개발센터.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학지사.
- 정용교, 백승대(2010). 사회과 행복교육의 요청과 실천. 교과교육학연구, 14(2), 335-356.
- 정정길, 성규탁, 이장, 이윤식 (2006).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서울：법영사.
- 조동기 (2009). 지역 단위 조사연구와 공간정보의 활용：지리정보시스템과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0(3)：1-19.
- 조영승(1997). 청소년학 총론. 서울：교육과학사.
- 진은설(2013).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4(1), 185-217.
- 진은설, 임영식(2011).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 집단의 특성 그리고 활동만족도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13(3), 281-303.
- 차우규(2000).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한국일본교육학연구, 4(1), 115-131.
- 참여연대 (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참여연대 정책자료.
- 천정웅, (1998). IMF 시대 청소년 참여의 방향과 과제. IMF 시대 청소년 소외와 참여. 서울：한국청소년학회.
- 천정웅, 오해섭, 김정주, 김민(2013). 청소년활동론. 파주：양서원.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4). 시행계획. 비공개 내부자료.
- 청소년활동진흥원(2012).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 청소년활동진흥원.
- 최인재, 임지연,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Ⅲ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8-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3).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 통계청.
-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대전: 통계청
- 한국방정환재단 (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영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 문영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a).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 서울: 문영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b).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서울: 양동문화사.
- 한성수, 윤문구, 정병국 (2009).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자 중심 모니터링체계 개발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한준, 강석훈, 김석호, 서은국, 홍종호, 이희길, 심수진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서울: 한국사회학회.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승애 (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형득, 조은설 (2010).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다원적 접근: 정보화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3(4), 181-209.
- 황성원, 김용훈 (2004).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황옥경, 김영지 (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연구보고(수시과제) 11-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en-Arieh, A. (2008). The child indicators mov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Child Indicators Research, 1(1), 3-16.

- Bradshaw, J., & Richardson, D. (2009).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Child Indicators Research*, 2(3), 319–351.
- Bradshaw, J., Hoelscher, P. & Richardson, D. (2006).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wla, L. (2002). *Growing Up in and Urbanizing World*. London: Earthscan.
- Chelimsky, E. (1985). Comparing and Contrasting Auditing and Evaluation Some Notes on Their Relationship. *Evaluation Review*, 9(4), 483–503.
- Cummins, R., & Lau, A. (2005). *Personal Wellbeing Index–School Children*(Third edition). Melbourne: School of Psychology, Deakin University Press.
- 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 (2000). *The National Children’s Strategy: Our Children – Their Lives*. Stationary Office, Government Publications (pp.5–48).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onnelly, S. (2004). How Bhutan Can Measure and Develop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347–374.
- EIU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 of life Index*. The World in 200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liana Riggio (2002). Child friendly cities:goodgovernance in the best interests ofthe child. *Environment&Urbanization Vol 14 No 2*.(pp.45–57).
- Fotheringham, A. S., Brunsdon, C. & Charlton, M. (2002).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the analysis of spatially varying relationships*. NJ: Wiley.
- Geary, R. (1954). The contiguity ratio and statistical mapping. *The incorporated Statistician*, 5(3). 115–145.
- Gollini, I., Lu, B., Charlton, M., Brunsdon, C., & Harris, P. (2014). *GWmodel: an R Package for Exploring Spatial Heterogeneity using Geographically Weighted Models*. <http://arxiv.org/pdf/136.0413.pdf>

- Greater London Authority. (2004). The Mayor's Children and Young People's Strategy. Greater London Authority (pp.109–124).
- Guerra Eliana. (2002). Citizenship knows no age: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e governance and municipal budget of Barra Mansa, Brazil. *Environment & Urbanization* Volume: 14 Issue: October Number: 2 (pp.71–85).
- Hagerty, M. R., et al. (2001).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 1–96.
-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ew York: UNICEF.
- Hu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 Louise Chawla (2002). *Growing up in an urbanising world*. London : Earthscan (pp.35–56).
- Marks, N., Abdallah, S., Simms, A., & Thompson, S. (2006). *The happy planet index*. New Economics Foundation, London.
- Moran, P. A. (1948). The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map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10(2), 243–251.
- New Zealand's AGENDA FOR Children.(2002). *Making life better for children*.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pp15–16).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Ord, J. K., & Getis, A. (1995).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statistics: distributional issues and an application. *Geographical analysis*, 27(4), 286–306.
- Pfeiffer D., Robinson, T., Stevenson, M., Stevens, K., Rogers, D. & A. Clements (2008). *Spatial Analysis in Epidem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he Children's Society (2013).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3*.

- <http://www.childreassoc.org.uk/well-being>.
- The Youth Development Strategy Aotearoa. (2002). Action for Child and Youth Development. Ministry of Youth Affairs January (pp.13–26).
- UNDP (2002). Handbook 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Results. New York: UNDP Evaluation Office.
- UNDP (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NY: UNDP.
- Únete por la infancia. (2014). Courtesy of the spanish national committee for UNICEF. <http://childfriendlycities.org/>
- UNICEF (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 (2006). Comparing Child Well-being in OECD Countries: Concepts and Methods. Innocenti Working Paper.
- UNICEF (2009). Child Friendly Cities promoted by UNICEF National Committees and Country Offices – Fact sheet, September 2009.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
- UNICEF (2011a). Comprehensive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reporting tool. <http://childfriendlycities.org/research/final-toolkit-2011/>.
- UNICEF (2011b). The child friendly city governance checklist. <http://childfriendlycities.org/research/final-toolkit-2011/>.
- UNICEF (2013a).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http://www.unicef-irc.org>.
- UNICEF (2013b).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http://childethics.com/wp-content/uploads/2013/10/ERIC-compendium-approved-digital-web.pdf>.
- Veenhoven, R. (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1–31.
- Winter, Micha de(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cliffe Medical Press.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CFC(Child Friendly Cities). <http://childfriendlycities.org>.

UNICEF. <http://www.unicef.or.kr>.

발표 4

미래 환경변화와 청소년정책의 과제

이 경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래 환경변화와 청소년정책의 과제¹⁾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최근 수년간 가족구조의 변화, 여전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불확실한 취업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측면의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중장기 미래사회 환경을 전망해 봄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통계청, 2012; 이종원, 이경상, 김기현, 2012;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3년~2014년 2개년에 걸쳐 26년~27년 후인 2040년까지의 환경변화와 청소년정책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2013년~2014년의 전체 연구기간 중 1차년도인 2013년에는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의 트렌드에 대한 전망적 연구를 수행하고, 2차년도인 2014년에는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전망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연도별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의 <그림 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차년도인 2013년에는 첫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메가트렌드와 미시환경트렌드로 나눠 추출, 제시하였고, 둘째, 제시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해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두 차원에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셋째,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넷째, 1차년도 연구결과 제시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함의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2차년도인 올해 2014년도에서는 첫째, 1차년도 연구결과 추출된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거쳐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한국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년도 고유과제로 수행한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1차년도 (2013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 제시를 위한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 마련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안)에 대한 정책자문회의 개최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 제시
2차년도 (2014년)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전망	•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및 특성 분석 •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의 특성 분석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회의 개최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 마련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안)에 대한 워크숍 개최 •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 제시

* 출처 : 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pp. 6에 제시된 표의 내용을 일부 수정.

【그림 I -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2.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미래연구의 절차는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따라 진행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최향섭, 2014).

첫째 단계는 환경관찰을 통해 핵심트렌드들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찰대상이 되는 환경을 여러 차원으로 나눠 과거와 현재의 주요 실태를 탐색하고, 나뉘어진 각 환경차원별로 미래에도 지속되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트렌드들을 추출해낸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이 단계 핵심트렌드들을 추출하는 작업은 문헌자료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실시하기도 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시하기도 한다(최향섭, 2014).

둘째 단계는 각 환경차원별로 추출된 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전망은 주로 전문가조사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시한다(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

셋째 단계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미래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시나리오 방법은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미래 주요 환경변수들의 관계를 추정하여 미래 발생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을

추정해보는 방법이다(배규한, 2000;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이세준, 이윤준, 홍정임, 2008).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앞의 단계를 거친 결과 추출한 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예측한 바를 가지고 트렌드 변수들을 조합하여 가능한 여러 상황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최항섭, 강홍렬, 장종인, 음수연, 2005; 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최항섭, 2014). 시나리오 분석은 우선 트렌드들 중 발생가능성과 미래변화에서의 중요성 등의 측면에서 주요 변수를 도출해낸 후, 도출해낸 주요 변수들간의 상호영향관계를 전문가토론회나 매트릭스표 등에 의한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측정하며, 주요 변수들간의 상호영향관계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최항섭, 2014). 이때 시나리오 작업은 추출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추출된 변수들 중 최종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불확실한 2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2 \times 2 = 4$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하고, 보통 10개 이내의 변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하며, 변수들이 많아 다중 시나리오 작업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때에는 단일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한다(최항섭, 2014).

넷째 단계는 비전, 전략, 과제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상정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비전, 전략, 과제 등을 수립한다(최항섭, 강홍렬, 장종인, 음수연, 2005; 김은지, 2011;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정재훈, 김혜영, 2011;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최항섭, 2014).

1차년도인 전년도 2013년에는 앞의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환경관찰을 통해 핵심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 우선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을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거시환경과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의 둘로 크게 나누었다. 다음으로 거시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의 6차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차원에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의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이어 청소년들이 인접한 미시환경을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 중 미시체계론을 참조하여(Bronfenbrenner, 1992, 이영 역, 1995; 이미선, 홍사훈, 2010; 김범수, 2009; 허창덕, 2012)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환경의 5측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측면에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의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을 추출하였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둘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트렌드 전망은 전문가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복지, 건강, 안전·보호, 비행·범죄,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의 미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 모두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2차년도인 올해 2014년에는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 연구결과 추출된 트렌드들을 조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을 추정해보고,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비전,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다.

3-1.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 주요 변수의 추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1차년도 연구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도출된 26가지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중에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를 추출하였다.

주요 변수의 추출작업은 26가지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해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두

측면에서 청소년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실시하였다. 1차년도 전문가조사 자료는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 모두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5점 척도로 측정(이경상, 최향섭, 그레이스정, 2013)했기 때문에, 두 측정결과를 합산하여 6.0이상 나온 변수들을 주요 변수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출현가능성과 전체 정책적 중요성을 합산한 점수가 6.0을 넘어,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되었다(표 III-1 참조).

메가트렌드 내에서는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합계 8.98),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합계 8.5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합계 8.52),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합계 7.91),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합계 7.54),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합계 7.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시환경트렌드 내에서는 ‘4. 매체환경’(합계평균 8.15), ‘3. 학교환경’(합계평균 8.05), ‘2. 또래환경’(합계평균 7.82), ‘5. 진로환경’(합계평균 7.68), ‘1. 가족환경’(합계평균 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중요성을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의 4가지 정책분야 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서도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합산한 점수가 6.0을 넘어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되었고, 정책적 중요성을 복지, 건강, 안전보호, 비행범죄,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의 8가지 정책분야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서도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 모두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합산한 점수가 6.0을 넘어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추출되었다.

표 III-1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의 추출-전체

구분	트렌드	출현 가능성	전체 정책적 중요성	합계	순위
		평균	평균		
메가 트렌 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32	8.98	1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4	7.91	11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3.77	7.35	22

미시 환경 트렌드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3.88	7.54	20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4.44	8.52	4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4.25	8.58	3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3.67	7.25	23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3.7	7.78	13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83	3.72	7.55	19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	4.28	8.28	5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일탈가능성 증대(F5)	3.58	4.07	7.65	17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3.59	7.67	1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3.8	6.96	24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	4.19	8.19	6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3.84	7.59	18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4.03	7.69	15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4.37	8.28	5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3.92	7.75	14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4.04	8.12	7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4.14	8.72	2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3.9	7.98	9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4	3.84	7.84	12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3.91	4.16	8.07	8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3.78	7.69	15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	3.96	7.96	10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3.75	7.41	21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3-2.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 주요 변수간 관계

다음으로 앞의 26가지 트렌드들에서 추출한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관계가 향후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을 위한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관계는,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매트릭스 표를 만든 후,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향후 미래의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전문가는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현장 전문가 분들을 고르게 포괄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조사는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은 다음, 이들 변수들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눠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한 표의 빈 칸에 본인이 생각하는 값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빈 칸에 기입하는 값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0,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로 측정하였다. 전문가조사의 최종 조사결과는 전문가들의 응답을 측정한 값의 평균을 낸 후, 1.00미만의 값은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0으로 코딩하고, 1.00이상의 값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2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수행한 미래 청소년환경 26개 트렌드 변수들간의 향후 미래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단일시나리오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I-2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단일시나리오 분석결과

독립	종속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척도 : (-2) 강한 부적영향, (-1) 약한 부적영향, (0)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침, (1) 약한 정적영향
 (2) 강한 정적영향

표 III-2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단일시나리오 분석결과

종속 독립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척도 : (-2) 강한 부적영향, (-1) 약한 부적영향, (0)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침, (1) 약한 정적영향
 (2) 강한 정적영향

4-1.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

국내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국내 각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정책들을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로 나눠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의 전 정책분야에 걸쳐 부서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복지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 희망카드 (Youth Opportunity Card) 도입	각종 할인제 및 청소년증을 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가칭)」 도입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다문화 감수성 증진·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확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조사(3년 단위) 실시 다문화 인식 진단도구의 개발 및 기준 마련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친선대사, 통역요원 등으로 활용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가이dra인 마련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교육, 부모-자녀 활동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자녀(만3세~만10세 미만)에게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해외체험 프로그램 강화,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청소년간 교류 강화 해외 한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아동·청소년 업무 지원 협약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발굴 및 관련 서비스 연계 진로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양성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위기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	전국 200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청소년 동반자 확대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일탈 위기 청소년 대상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지원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	고위기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사업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확대	CYS-Net을 연도별 확대를 통한 서비스 수혜 청소년 확대 및 위기 수준 감소 CYS-Net 연계망의 필수 구성 기관 인 필수연계 기관 운영 활성화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이혼가정 등 취약가정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가족 상담 지원 가족봉사단 운영 활성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동에게 1인당 연간 480시간의 돌봄서비스 교육·문화·가족상담·부모자조모임·정보제공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시설 특성에 맞는 지원 다양화 및 운영역량 강화
교육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다문화 어울림 교육 강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강화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 확대·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자립 지원 강화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 확대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도모
법무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교과부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강화
국방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장병 대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다문화장병 및 가족 참여 기획 프로그램 운영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문화예술프로그램·국내여행 등 문화향유 기회 제공 문화누리카드(연간 가구당 10만원) 1인당 월 1강좌, 7만원 이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통일부(2014), 법무부(2014), 국방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복지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표 IV-2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건강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 체력 강화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보급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강화	청소년 흡연·음주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매체활용 대국민 홍보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
보건복지부	비만 예방	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2~2016)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균형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한 비만예방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지원 강화	국립정신병원 중심 정신건강 병원학교 운영 확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실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청소년 정신건강 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신건강 위기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축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절주교육 전문가 양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교육 학교정화구역 주류판매업소 감시 및 지자체 행사 청소년주류불법판매 감시 건전음주 문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지원 사업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해 문제음주 청소년을 등록하여 치료 및 재활 관련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다양한 중독증상 예방·관리
교육부	청소년 체력 강화	교육지원청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개최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건강지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지속관리가 필요한 취약학교 중심의 집중지원을 위한 교육청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초1·4학년, 중·고 1학년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및 추구관리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 지도·감독 등 관리 강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연1회 이상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학교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체력 강화	청소년 체력 증진 기반 조성 연구개발 종목별 프로그램 교실 운영을 통한 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전국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토요 스포츠데이(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운영 확대
농림축산 식품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조성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 식생활교육 범국민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운영 및 캠페인 등 홍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자체 및 학교 단위 식생활교육 확대
식품의약품 안전처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 환경 조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내실화 아동·청소년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 영양표시 확대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농림축산식품부(2014), 식품의약품안전처(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건강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표 IV-3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안전보호정책

주관부처	주요 사업	사업 내용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또래상담 운영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강화	“매체물에 등장 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등 민간자율 정화 지원
	도시계획 수립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 및 감시활동 강화 관련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정책집행 협력 강화 성범죄자 관리 및 재교육, 취업 제한 등의 제도강화
여성가족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유해환경 점검(출입제한 업소 등) 청소년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침해행위 예방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 및 쉼터연계 등 보호조치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강화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재활·지원사업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청소년 유해매체(인터넷, 음반 등)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감시·관리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상대방 본인인증 의무 강화

주관부처	주요 사업	사업 내용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 평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상담·치료 지원 강화
	정서적·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 재활 서비스 지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및 전국 확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진단 및 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지원 및 홍보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아동안전 콘텐츠 개발 및 아동안전 사이버교육센터 구축 아동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종사자, 교사 교육 및 홍보 등 전개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여 치료 및 재활 관련 관리 시행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사업 확대 시행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교육 및 미디어교육 강화	스마트폰 등 인터넷 관련 중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교육부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또래상담 운영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계획수립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추진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학교주변에 유해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학교 내 설치된 CCTV 성능 개선 및 설치 확충 초등학교 내 설치된 CCTV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및 점검, 전수 조사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교통안전 예방 활동 강화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교외 전문 인력과 연계 활동 강화 초등학교 중심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관리 철저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교육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취약지역 점검 강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시범 운영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확대 각종 캠페인 실시

주관부처	주요 사업	사업 내용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미디어 교육전문가 풀 구축 활용
법무부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 확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청소년 성문화교육 및 성보호 관련 홍보 강화	소년보호기관 성교육 담당자 전문교육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신도시 개발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시범도입
	성범죄자 공동주택 취업제한 강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점검 및 공개
안전 행정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3대 안전관리의무 이행 추진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완료로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실시 초등학교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미래창조 과학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생애주기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실시 지역별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설치·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청소년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및 등급분류 정보 제공 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폭력성, 선정성, 언어의 부적절성 등) 자율등급분류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게임이용 단계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중독 예방조치 운영 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지원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등에 미디어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미디어교육 지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경찰청	아동·청소년 등하교길 안전 강화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아동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아동 등 실종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 관리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대상 기초 DB 확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학교폭력 등 신고 접수·상담·수사·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 제공 117 센터에 대한 수요자 중심 시스템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로 학생들이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 청소년 활동 주기에 맞춰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 활동 지속 전개

주관부처	주요 사업	사업 내용
소방방재청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안전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서비스 운영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강화 모니터링 강화와 심의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청소년 출연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방송 제작 환경을 조성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이통사에게 청소년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 SW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 PC 및 스마트폰용 필터링 프로그램 보급 지속 확대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법무부(2014), 국토교통부(2014), 안전행정부(2014), 미래창조과학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경찰청(2014), 소방방재청(2014), 방송통신위원회(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안전·보호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표 IV-4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비행범죄정책

주관부처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강화	성인식 개선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폭력 예방 자료 보급
	위기 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1:1 심층상담 및 맞춤형 사례지원 24시간 365일 청소년 실시간 상담체계 운영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청소년쉼터의 운영 지원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축·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지정·운영 117 상담신고센터 지원
	비행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일탈 위기 청소년 대상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비행청소년 대상 문화예술·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가출 예방교육을 실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위기상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 사안처리점검단 운영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아깨동무학교) 운영 지원
법무부	부모교육 확대	부모와 연계한 보호관찰대상자의 효율적 지도감독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적극적 부모역할, 청소년의 비행과 자녀교육과의 관계 등 교육 실시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실행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의 과도한 성적 충동·환상, 과잉성행동 등의 문제를 감소시켜 재범 억제

주관부처	주요 사업	주요 내용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마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성비행예방 전문지도자 양성과정(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개설 소년원생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교육 등을 실시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 강화	치료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왜곡된 성 의식 개선 기관별 소집단 장기 프로그램 운영 보호관찰 개시교육 시 성폭력 예방 교육 필수 실시 성폭력 가해 남자 소년원생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진행 성폭력 피해 여자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 진행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위기·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지역사회 일반청소년 등에 대한 법교육 및 심리상담 지역사회 위기·일반청소년 보호자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
	비행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범죄 성향 개선, 교화 소외계층 지원 활동 및 피해회복 프로그램 실시
안전 행정부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경찰청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도서지역,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가출청소년 발견 시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인계불가·곤란할 경우 관련시설 등 입소 조치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명예경찰소년단으로 선발(초등 4-6, 중등 1-2) 학생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등 범죄로부터 보호능력 배양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부모·교사 대상 학교폭력 예방설명회 실시

※ 여성가족부(2014), 교육부(2014), 법무부(2014), 안전행정부(2014), 경찰청(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비행·범죄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표 IV-5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교육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농산어촌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화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도농·국제 청소년간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주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상급 학교 진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 향상
교육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학교에서의 청소년기 자녀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일과 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학부모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학부모강사 전문연수 강화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및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기초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대상자,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 지원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 하에 국가장학금 지원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일과 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자료 실천적 활용 및 개발 범국민적인 캠페인 공감대 형성
문화체육관광부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사례 공모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관련 교사용 지도서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운영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농어촌인성학교 공동 지정 농어촌 체험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공동 개발하고, 시설물 지원 및 운영시스템 구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여성가족부(2014), 교육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농림축산식품부(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표 IV-6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진로직업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점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 및 정보제공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community workplace) 추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 설에서 지역내 기업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여대생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의 차별화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으로 특화된 청소년수련시설 신 규 건립 추진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비 지원 취약 위기 청소년 중 사회진출 필요 청소년 대 상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서비스 지원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 워크 구축	청소년 우호기업 위촉을 통한 청소년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민간 기관 MOU 체결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사회진출 시 일정기간 주거·취업·교육지원 서비 스 연계 및 사례관리, 자립생활 정착 지원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 워크 구축 (휴먼네트워크)	멘토-멘티 연계 및 멘토링 교육·연구사업
교육부	진로직업체험 활성화	중·고교 단계 각 1회 이상 진로직업체험 운영 진로체험 지원 인프라 구축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학교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커리어넷을 통한 종합적인 진로정보서비스 확대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검사 및 상담 서비스 확대)	중등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 실시 교원의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역량 제고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취업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예산 지원 학교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처 발굴 및 알선, 추수지도
	청소년 주거지원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기숙사 지원 대학내 기숙사 신·증·개축 사업 지원

주관부처	주요사업	주요내용
법무부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강화	소년원 출원생 취업 및 자립지원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운영 1:1 멘토링 시스템 구축 무의탁 출원생 지원을 위한 전국 8개 자립생활관 운영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참여, 취업과 정 지속 운영 장학금 지급 등 경제적 자립 지원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지원 장학금 지원 및 경제구호 각 시·도 교육청, 학교와 연계한 복학주선 고입·대입 검정고시 지원으로 학력취득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연계 통근취업, 현장훈련 등 직업체험 실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근로이익을 고취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 전개
국토교통부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주택 지원
	청소년(청년)주거 지원	자체 부지 활용하여 기숙사 신축시 국민주택기 금(총사업비 53%수준) 지원 다수 대학의 학생에게 입주혜택이 부여되는 연 합기숙사를 건설 지원
고용노동부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근 로조건 보호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 알바신고센터, 앱, 신고 대표전화 등을 통해 신 고체계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 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직장체험장 추진	민간기업, 공공·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 지원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체험(3개월 이내) 지방강소기업 등 탐방 기회(1~2일)를 제공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 지원	취업지원관(169명) 채용을 지원하고, 46개 대학 에 청년고용센터를 설치 권역별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취업성공자에 대해선 별도의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한 임금 지원

주관부처	주요사업	주요내용
	한국잡월드를 통한 직업체험 강화	직업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사회 저명인사가 멘토가 되고 청년을 멘티로 선발하여 멘토링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법정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중장기 대책 수립·추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
중소기업청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 지원	특성화 교과과정 개발·운영, 교육기자재 구입비, 특성화 전담교원 연수비 등 지원 특성화고 학생 Career관리,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이론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교내체험활동(경진대회, 비즈마켓, 창업골든벨), 대외행사(창업캠프, 페스티벌) 외부 전문가 특강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법무부(2014), 국토교통부(2014), 고용노동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중소기업청(201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표 IV-7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활동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역량별 지표 개발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 국가 청소년역량지수(Youth Competencies Index)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군역(지역)별로 특성화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추진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 청소년센터(가칭)로 개편하고 종합기능 강화 및 설치확대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역량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및 법적근거 마련 청소년의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특화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정 추진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보수교육 지원 및 포상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수련시설 배치기준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개선 추진
	청소년상담사 전문연수, 보수교육 지원 등	청소년상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인증 추진을 통한 운영 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일선 학교와의 연계 추진 청소년단체 지도자 전문성 확보,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청소년활동종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활동 개별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한 개의 아이 디로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이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추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마련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 운영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성화 추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의 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소년 참여 확산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운영토 록 지원 확대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이주배경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캠프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저개발 국가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협력(ODA) 확대
교육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 험활동 강화	창의체험자원지도 구축운영 창의체험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사춘기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의 합숙 캠프 운 영으로 부모-자녀 관계 촉진
미래창조 과학부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전국 초중고교 아름누리지킴이 동아리 지원 교육, 홍보 및 체험활동 전개로 학교 내 건강한 정보문화 확산
문화체육 관광부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 램 개발·보급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소외계층 대상 사업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동아리 및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사업
	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 그램 운영	청소년 체험형 국악공연 및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제공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전통 공연 프로그램 제공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청소년 대상 왕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과 박물관·궁궐 등 현장을 연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왕실문화 특화 주말·방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 그램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생한 자연유산 체험기회 제공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
안전 행정부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 성화	나눔포털 운영 시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파악, 활동실적 증빙·제출 등 청소년들을 위한 편 의 제공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월례휴가제 활성화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도농교류협력사업	청소년 농어촌 체험 사업
해양 수산업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 험활동 강화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어촌교류촉진
산업통상 자원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 험활동 강화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 프로그램 임베디드SW경진대회 (주니어 분야)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 교육용 로봇 시범사업 지원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개최
환경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 험활동 강화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및 청소년 환경체험교육프로 그램 개발·보급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친환경체험 기회 제공
외교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 험활동 강화	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 사업	한·미/중/일 청소년 교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대학생을 위한 외교부 워크숍 주요 국제문제 특강 학교 방문 강연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협력특강 지원 강사양성교육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적격강사 선발 코이카 통합공모전 수상자 대상 해외무상협력사업 현장 견학 실시 지구촌체험관 운영
통일부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 이해증진	남북 청소년교류협약체 구성 및 운영 남북 청소년교류 기반 조성 추진 단계별 청소년교류 추진
국가 보훈처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실 천 역량 강화	나라사랑 연수교육 청소년 보훈캠프 독립군 체험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봉사 프로그램(앞섬이) 운영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및 창의체 험학교 지정·운영	방문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 문화유산교육(이론, 현장 답사) 실시 문화유산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청소년 대상 문화재 보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인 「청 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운영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및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궁궐 및 궁궐 문화유산의 전반적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현충사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과 연관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습·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해양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
농촌진흥청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4-H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특허청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발명영재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 확산 우수 발명인재 발굴을 위한 발명·창의력 대회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
산림청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초·중) 대학생 대상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족부(2014), 교육부(2014), 법무부(2014), 미래창조과학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안전행정부(2014), 농림축산식품부(2014), 해양수산부(2014), 산업통상자원부(2014), 환경부(2014), 외교부(2014), 통일부(2014), 국가보훈처(2014), 문화재청(2014), 농촌진흥청(2014), 특허청(2014), 산림청(2014), 국민권익위원회(210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활동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표 IV-8

2014 부처별 주요 청소년 권리참여정책

주관부처	주요사업	고유번호
여성가족부	청소년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등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 제도 도입 추진 특화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개선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 체계 강화	초중등 교원 대상 양성평등 교수 능력 함양 교육 실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지표 개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민주시민역량을 준비하는 학습의 장 마련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 사이트 개발·운영 지원 일반청소년 대상 트위터, SNS,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한 정책참여 통로 마련

주관부처	주요사업	고유번호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추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국가·자치단체·청소년시설의 정책 형성·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 대상 권리교육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한 권리교재 활용 및 협약 이행 적극 홍보 청소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협약 홍보 권리교육 협약 이행사항 모니터링 등 추진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인터넷, 음반 등)에 대한 사업자 대상 컨설팅 및 청소년보호교육 실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매주 수요일 시행 중인 '가족사랑의 날' 확산 캠페인 시행
보건 복지부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청소년 대상 나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대한민국 아동총회 지역대회 및 본 대회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지역별 참여 아동 선정, 지역별 대회와 본 대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실태 점검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교육부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가족·사제동행 봉사활동 공모전 개최를 통한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모델 개발 보급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또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학생모니터단 활동지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 학생들이 정책에 대한 대안 등 의견을 자율적으로 개진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교육 및 지속적인 연수 실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교사연수 자료 등으로 개발 및 연수 실시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실시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확대 시행을 통한 공부하는 학

주관부처	주요사업	고유번호
	문화조성	생선수상 정립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연수)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	교육기반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례 개발 및 교원 연수 실시 유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바른 인터넷 생활지도 이해 제고
미래창조 과학부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	범국민 정보윤리교육 강화 정보화역기능대응 리더십 직무연수 운영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체험·사례 중심의 공연교육 확대
문화체육 관광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청소년의 영상물 건전이용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 조성	체육지도자, 운동선수, 학보모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각종 (성)폭력 등에 대한 신고 접수사항에 상담
경찰청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아동·장애인 행동과 진술분석의 전문성 필요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진술녹화실 외부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조사 참관 후 의견서를 수사자료로 제출
방송통신 위원회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특집 프로그램 및 공익광고(자막) 방영 등 캠페인 추진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 활동 강화 방송종사자에 대한 올바른 언어교육 및 방송언어 순화 활동 지원

※ 여성가족부(2014), 보건복지부(2014), 교육부(2014), 미래창조과학부(2014), 문화체육관광부(2014), 경찰청(2014), 방송통신위원회(2104)의 201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청소년 권리·참여 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재구성함.

4-2.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우리나라에 비해 사회문화적 여건이 앞선 선진국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나라를 모두 포함해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 여건이 앞선 선진국으로는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로는 뉴질랜드와 일본의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 분석에서는 사회통합, 민주적 권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 등을 중심적인 정책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에서는 단기 정책 아젠다로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창출, 청소년의 참여 확대, 사회와 청소년간의 상호 연대 강화를 제시하고,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창출의 하위 정책영역으로는 교육, 고용,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청소년의 참여확대의 하위 정책영역으로는 보건과 스포츠, 참여를, 사회와 청소년간의 상호연대 강화의 하위 정책영역으로는 사회적 포섭, 자원봉사, 청소년과 세계를 제시하고 있었다(European Commission, 2009).

표 IV-8 유럽연합의 단기 정책아젠다와 하위 정책영역

단기 정책아젠다	하위 정책영역
1.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	교육
	고용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2. 청소년의 참여 확대	보건과 스포츠
	참여
3. 사회와 청소년간의 상호 연대 강화	사회적 포섭
	자원봉사
	청소년과 세계

※ European Commission(2009). An EU Strategy for Youth-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 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정리함.

유럽평의회의 미래청소년정책 Agenda 2020은 유럽평의회의 약 40년간의 청소년정책의 집대성이자, 미래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미래 청소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세 가지 기본이념을 청소년정책에 부여함으로써 향후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기본지침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기본이념이자 철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Titley, 2008:4). 첫째, 인권과 민주주의. 둘째, 다원화 사회에서 함께 살기.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포섭(사회적 배제 예방)(Titley, 2008:4).

표 IV-9 유럽평의회의 AGENDA 2020 미래 청소년정책 개요

기본이념	세부정책 내용
1. 인권과 민주주의	청소년의 인권, 인간 존엄성 향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청소년의 참여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 안에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진흥 청소년의 동등한 참여 확대 성 고정관념에 의한 폭력 예방 및 청소년의 성 평등 확산 환경교육과 지속가능개발교육의 강화 및 필요성 인식 강조 유럽평의회의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 강화
2. 다원화 사회에서 함께 살기	문화다양성, 연대, 간문화적 의사소통의 촉진을 위한 청소년 임파워 먼트 모든 형태의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 극단주의 척결과 예방 청소년이 갈등 예방과 화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유럽의 소외지역과 전 세계 청소년과의 협력강화 지구적 연대와 결속 강화
3. 청소년의 사회적 포섭 (사회적 배제 예방)	비형식교육(청소년활동)에의 참여확대를 통한 교육, 훈련, 고용에 관한 청소년의 접근성 촉진 청소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건강한 전환 지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통합 지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 보장과 청소년의 자치권 향상 예술, 문화, 스포츠 활동 참여에의 평등권 보장 세대 간 소통과 결속강화

※ Titley, G.(2008:7-15). The future of the Council of Europe youth policy: AGENDA 2020, 8th Council of Europe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Background document, Council of Europe에서 전반적으로 소개된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종합하여 제시함.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둘러싼 중장기 미래사회 환경을 미리 전망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환경에 대해 사전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사회”가 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의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외에 교육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등 청소년 정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과 외국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결과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강화가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양극화사회와 위험증가’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또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양극화 문제는 청소년 성장발달과정에서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여 청소년 성장발달과정에서의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도입되어 시행중인 보육료, 양육수당제 도입에 이어 청소년들의 발달상황에 적합한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시행중인 보육료, 양육수당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 청소년 수당제의 제시가 다소 이른 제안일 수도 있지만, 향후 20여년간의 사회발전을 고려하여 청소년 수당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 수당제의 실시에 대한 검토 및 실시는 향후 미래 청소년들의 양극화 문제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또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의 미래 사회공동체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청소년들의 미래 사회공동체성을 담보하는 데는 자원봉사, 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이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앞의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도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앞의 국내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에서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활동은 나눔활동 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속에서 소극적, 형식적, 시간채우기 식으로 참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나눔활동이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학교는 청소년들이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곳임과 동시에 가정, 또래관계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사회화 기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학교환경 중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 사회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학교 내 교과담당 교사들 이외에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지도하고 함양할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저신뢰사회와 갈등증가’가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예견되는 저신뢰 상황을 타개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5)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또래환경 변수로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가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또한 이들 트렌드 변수들은 각각 다른 환경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거쳐,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그리고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화 기제 중의 하나인 또래관계가 미래사회에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 또래관계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6)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학교환경 변수로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가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사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대간의 갈등 및 통합의 약화는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가 직접적으로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전망되었다.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가 예견됨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 정책의 비전, 전략, 과제를 설정, 제시하였다. 우선 미래사회 청소년정책의 비전은 ‘행복한 청소년, 선진미래 창조’로 설정하였다. 이 비전을 달성할 전략으로는 기회균등 강화, 공동체성 강화, 신뢰 강화, 소통합리성 증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점 과제로는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의 일곱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비전	행복한 청소년, 선진미래 창조
전략	기회균등 강화 / 공동체성 강화 / 신뢰 강화 / 소통합리성 증대
과 제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

세미나자료집 15-S08

제2차 2014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미래와 활동 활성화

인 쇄 2015년 3월 11일

발 행 2015년 3월 1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